

Vol.144 2017 March / April

Special theme

흔하지만 진단이 복잡한 급성 복통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솟아나는
봄의 기운처럼,
건강하게
이겨내세요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봄처럼 따뜻하게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김경현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 경 현



매서웠던 추위의 계절도 지나가고, 새싹이 움트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활기차게 맞이한 새해에 세웠던 목표와 다짐들을 새로운 계절과 함께 다시금 시작해볼 수 있는 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봄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시작'이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계절입니다.

2017년 3+4월호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이 새로운 스페셜 테마로 꾸려집니다. 서울 동남권역 유일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중증응급질환 치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흔하지만 진단이 복잡한 성인 복통을 주제로 소화기내과, 외과, 비뇨기과 질환을 다룹니다.

또한 지난 1월 개소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소식은 한양토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구리, 남양주, 서울 동북부를 포괄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의 역할을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해내겠습니다.

따뜻한 날씨지만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환절기에 올 수 있는 호흡기 질환, 건조한 기후에 발생하는 피부 질환 등 건강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는 봄철부터 사소한 습관부터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도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으로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Vol.144 2017 March / April

24시간 불 밝힌 권역응급의료센터 ❶

흔하지만 진단이 복잡한 급성 복통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 중 가장 흔한 경우는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을 가진 환자들입니다. 2016년 국가응급의료정보망을 통한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중 복통 연관 질환은 총 14.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흔하지만 진단이 복잡한 성인 복통을 소화기내과, 외과, 비뇨기과 질환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Contents

- 02 **즐거운 편지** 봄처럼 따뜻하게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양대학교병원 엄지은 혈액종양내과 교수
- 08 **Love, Life** 한양대학교의료원 사회복지팀

- 14 **Special theme ❶** 복통을 일으키는 소화기 질환
- 16 **Special theme ❷** 수술을 요하는 급성 복통
- 18 **Special theme ❸**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비뇨기과 복통

- 20 **Hanyang Topic**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개소식
- 24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영국 팝 스타 조지 마이클의 '심부전'
- 26 **베스트 파트너** 한양대학교병원 협력병원 진광준외과의원
- 28 **Dr. Opera**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 30 **Dr. Movie**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떠난 영화의 여정
- 32 **예술과 예술의 만남** 알폰스 무하의 '페렘'
- 34 **고마운 당신에게** 송중훈 정형외과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 36 **오늘의 건강강좌** 일상을 바꾸는 걷기운동 습관에 대하여
- 37 **Hanyang News** 서울 동남권역 유일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 외
- 40 **연론 속 한양인**
- 42 **발전기금**
- 46 **한양캘린더**
- 47 **외래 진료 시간표**



발행처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발행일** 2017년 3월 2일 통권 144호
발행인 김경현 **주소**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대표전화** 02-2290-8114
Homepage www.hyumc.com **기획** 대외홍보팀 02-2290-9532~6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펴내는 격월간 매거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喜怒哀樂'.
의사로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완치’ 희망 새기는 공정의 힘

엄지은

한양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세기의 영화 <러브스토리>의 주인공도, 한류의 물꼬를 튼 드라마 <가을동화>의 주인공도 끝내 백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오랜 세월 불치병의 대명사로 악명을 떨쳐온 백혈병은 엄지은 교수에게는 필사의 숙제이자 동반자다. 환자에게 ‘완치’의 희망을 선물하는 희열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엄지은 교수의 상기된 목소리를 통해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글: 윤진아 사진: 김지원



조혈모세포이식·혈액암 치료 새길 연다

2015년 조혈모세포 이식센터를 리뉴얼하고 조혈모세포 이식 전문의인 엄지은 교수가 합류하면서, 한양대학교병원은 조혈모세포 이식 분야에서 한발 앞서가게 됐다. 엄지은 교수는 혈액종양내과 전임의를 거쳐 캐나다 프린세스 마가렛 암센터에서 전임의 및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팀 전문의로 활약했다.

일반적으로 ‘골수 이식’으로 잘 알려진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 혈액종양 환자의 암세포와 조혈모세포를 제거한 다음 새로운 피를 생성할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치료법이다. 정교함과 정확성, 적시성을 요하기 때문에 시술 중에서도 고난도 시술에 속한다. 다양한 임상경험을 토대로 엄지은 교수는 자가 및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 빈혈 및 각종 혈액질환 환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환자들 중에는 중증환자가 많고, 이식 후에도 여러 합병증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긴 회복기를 가져야 하죠. 한양대학교병원 조혈모세포 이식센터는 24시간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중앙집중식 제어 시스템 등 각종 첨단 의료시설과 함께 임상경험이 많은 전문 담당교수와 전공의, 전문 간호사들이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기간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의학은 가장 인문학적인 과학

학창시절에는 물리학과 지구과학에 심취했던 과학도였다. 돌이켜 보면 근본적인 관심은 생명이었던 듯하다. 밤새워 공부하던 의

의학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모두 언젠가 죽게 마련이잖아요. 일부 만성질환, 중증환자의 연명치료는 고통스러운 과정의 연속이에요. 단 1%의 가능성도 놓지 않고 생명을 살리려는 ‘의사로서의 최선’이 과연 환자를 위해서도 최선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대생 시절, 그리고 속절없는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레지던트 시절,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다짐들을 하루하루 차곡차곡 실현 중이다.

“현대의술에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내과 중에서도 만성질환, 중증환자가 많은 혈액종양내과는 그만큼 ‘주치의’로서의 사명감과 보람도 큰 진료과입니다. 환자의 고통과 절망만큼 의료진도 지칠 때가 많지만, 환자들을 위한 최선을 고민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환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를 믿고 찾아온 환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다 보면 하루가 쏠살같이 지나갑니다.”

전체 암 환자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혈액암은 전신을 순환하는 혈액 내에 떠다니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 혈액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이다. 때문에 진단할 때 이미 전신에 퍼져 있고 진행이 매우 빠르다. 혈액세포뿐만 아니라 혈액응고계 등 혈액 전반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혈액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엄지은 교수는 호주아시아태평양 임상암연구개발워크숍(ACORD Workshop) Travel Award(2008), 제33회 유럽암학회 Travel Award(2008), 제55회 미국혈액학회 우수초록상(2013) 등을 수상하는 등 연구에 꾸준히 힘을 쏟고 있다. ‘시술 이후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하는 엄지은 교수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의 합병증 및 면역상태에 관한 연구에도 관심이 많다.

“이식 시술까지가 절반, 그 이후를 나머지 절반으로 봅니다. 면역의 기본은 ‘인지’예요. 백혈구가 자기와 동일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인지해 다르다고 판단되면 면역 반응을 보이죠. 합병증과 부작용을 잘 이겨내야만 진짜 이식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식에 따른 합병증 발생과 사망 위험, 이식 후 예상되는 생존율을 고려해 최선의 치료 목표와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하고, 약을 평생 복용하는 만큼 부작용 걱정 없이 건강한 사람



과 같은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도 의료진의 몫입니다.”

당신은 ‘건강한’ 백혈병 환자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환자와 의료진을 막론하고, 매 순간 초심을 다잡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매일 누군가가 죽어 나가는 병원 속, 하룻밤에 사망진단서 석 장을 쓴 적도 있던 레지던트 시절을 떠올리며 엄지은 교수는 매일 자신을 채찍질한다. 엄 교수는 레지던트들의 불만이 속출할 만큼 회전 시간이 긴 의사로도 유명하다.

“백혈병의 경우 환자들 스스로 ‘죽는 병’이라고 인식하는데, 의료진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환자에게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치료는 진전도 의미도 없거든요. 과거 만성골수성백혈병은 4~6년간만 생존할 수 있는 불치병이었지만, 치료 기술이 발달해 이제는 치료제 복용만으로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 됐습니다. 또한, 모든 혈액암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면 완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작용이 크지 않은 치료를 계속하면서 장기간 생존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만큼, 환자가 희망을 놓지 않도록 곁에서 용기를 북돋워드리고 있습니다.”

먼 훗날, 자신의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살 맛 나게 만들어준 의사’였다고 기억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엄지은 교수는 후학 양성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책장 한쪽에 꽂힌 책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제자들에게도 종종 권하는 책이다.

“의학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모두 언젠가 죽게 마련이잖아요. 일부 만성질환, 중증환자의 연명치료는 고통스러운 과정의 연속이에요. 단 1%의 가능성도 놓지 않고 생명을 살리려는 ‘의사로서의 최선’이 과연 환자를 위해서도 최선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의학은 규칙대로 돌아가는 수학과 물리학과는 달리, 관찰돼 정립된 생물학적 특성도 환자마다 미묘한 차이를 보이죠. 환자를 볼 때마다 충분히 관찰하고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은 세포가 병원에 집중돼 있다 보니 일상과 여가의 범주는 점점 좁아지고 있지만, 환자들이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노라고 했다. 지금껏 뭘 했나 돌아봤더니, 결국 자신이 지향했던 것은 과학, 그리고 사랑이었노라고 했다. 믿을 수 있는 주치의가 되어 ‘환자를 위한 최선’을 고민하고 희망적인 대안을 내놓겠다는 엄지은 교수의 따뜻한 에너지가 병원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이유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인팍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의 허브

한양대학교의료원 사회복지팀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설립이념은 '사랑의 실천'이다.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한양의 길 음걸음에는 사회복지팀이 함께하고 있다. 사회복지팀은 전문자격을 갖춘 의료사회복지사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글 정리희 사진. 김지원



취약 계층의 고통을 함께 나누다

사회 안팎으로 복지 환경에 변화가 일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도 그 역할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는 중이다. 외국의 대학병원에서는 수십 명의 사회복지사가 각 진료 부서에 파견되어 영역 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는 진료팀의 일원으로서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사회적·경제적·정신적 문제 해결을 돕는 일을 한다. 1972년 개원과 함께 개설된 사회사업과는 몇 차례 명칭 변경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취약 계층 환자들의 경우, 치료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진료비 문제로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복지팀은 여러 진료과에서 의뢰한 저소득층 환자들의 진료비를 지원할 방법을 마련하고, 수술과 치료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한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저희가 먼저 환자를 발굴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요.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외래 혹은 입원한 병동간호사실

에 상담을 요청하면 임상 각 과의 주치의가 전산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팀에 협진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의료진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 후에 저희가 환자와 가족을 만나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귀담아듣고 진료비 지원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복지팀 성명순 과장이 진료비 지원과 관련한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했다. 의료사회복지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상담을 받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2005년 852회였던 상담 횟수는 2015년에 들어 3,080회에 이르렀다. 현재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는 매년 많은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복지기금 마련에 동참하고 있다.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직접 후원은 물론 기금 마련 행사 진행과 참여 등을 통해 간접 후원을 하기도 한다. 덕분에 2005년 4억여 원 내외였던 진료비 실적도 2015년에는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 설암으로 수술한 박재윤 환자 역시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사례다. 진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보다 큰 보람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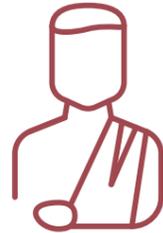
상담 의뢰 진행 과정





최근 5년간 진료비 지원
(정부/민간/원내 지원을 포함한 전체 진료비 지원)

지원환자 수 총 1,850명
후원액 약 45억 3,500만원



지원환자 수 총 615명



후원액 약 6억 9,600만원

최근 5년간 원내 진료비 지원
(사회복지기금을 이용한 원내 지원)

지역사회로 더욱 깊숙이

한양대학교의료원 사회복지의 가장 큰 차별성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활동이다. 서울병원의 경우, 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성동구 내 민·관 95개 기관 180여 명이 참여해 만든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 네트워크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건강의료분과와 통합사례관리분야에 참석하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 살핀다.

그밖에 협약기관도 다양하다. 성동구보건소와는 1998년부터 협약을 맺고 관내 복지관을 중심으로 성동구민을 위한 의료봉사를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성동구와 사랑의 실천 후원협약을 체결해 백내장을 비롯해 안과 질환 수술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있다. 성동드림스타트와 연계해 성동구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건강 윈스톱 종합검진을 제공하고,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의뢰를 받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성명순 과장은 “국내 종합병원 중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이 유일하다”고 자부한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사회복지팀이 개설될 때도 지역사회 연계활동에 초점을 두었다. 덕분에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매우 탄탄하다. 네트워크의 힘은 곳곳에서 발휘된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회복지팀 임경숙 계장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네트워크가 강하다’는 것은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지역 안에서 최대한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고 덧붙인다.

따로 또 같이하는 사회복지활동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더라도 환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팀에서는 인턴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
(1998~2015년)

진료일수 1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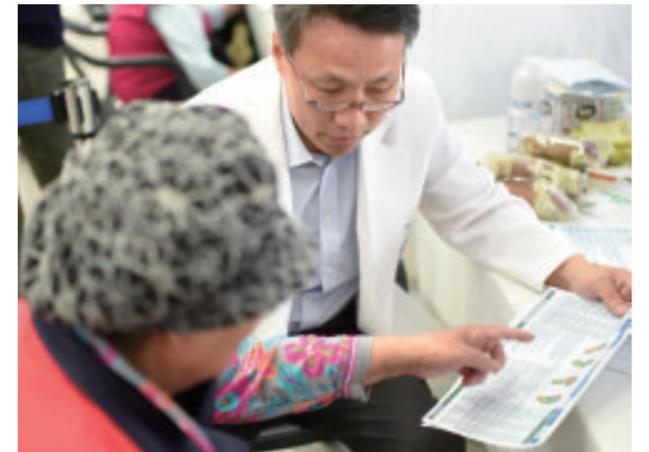
진료환자 수 연인원 16,787명



의약품비 총액 45,345,569원



지원인력 1,123명



과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알리는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병동이나 외래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마주했을 때 적절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다.

부족한 인력에도 일당백으로 활약하고 있는 사회복지팀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교직원들이 사랑의 실천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했다. 행정을 담당하는 강희명 계장은 “바자회나 행사 때 물건 하나라도 구매하면 그것이 바로 기부”라며 나눔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당부한다.

“매년 두 차례 정도 바자회를 하고 있고 행사도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환자께 후원의 혜택을 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일선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최전선에 사회복지팀이 있지만, 결국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은 한양대학교의료원에 있는 모두다. 앞으로도 사회복지팀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의 허브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데 충실히 하고자 한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은 채로 말이다.☺

사회복지기금 후원 안내

사랑의 실천은 행동입니다. 따뜻한 나눔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사회복지기금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특정 환자를 추천받아서 지정 후원하거나 특별히 후원대상 환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후원금관리위원회 관리세칙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지원합니다.

후원 참여

한양대학교병원

신한은행 140-005-615597
후원 문의 : ☎02-2290-9440

한양대학교구리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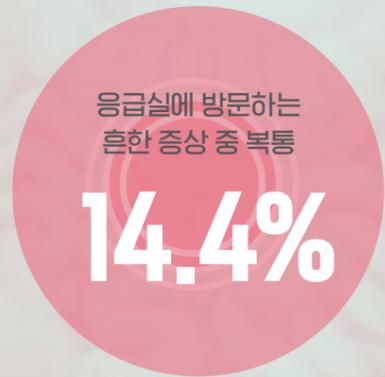
신한은행 100-022-004433
후원 문의 : ☎031-560-2986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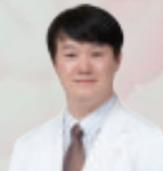


흔하지만 진단이 복잡한

급성 복통



글. 강형구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소화기 외 질환

출처 : 국가응급의료정보망



가장 많은 응급질환, 성인 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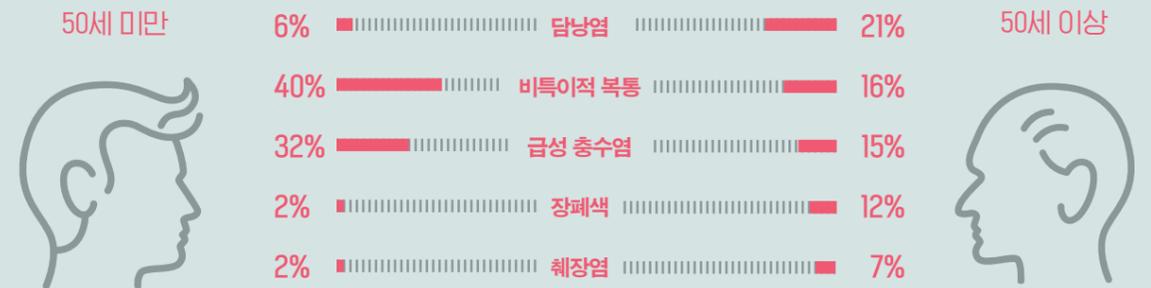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복통이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보통 상비약으로 소화제나 제산제, 진통제를 복용하고 호전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나아지지 않을 때에는 내원해서 진찰을 받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 중 가장 흔한 경우는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다. 2016년 국가응급의료정보망을 통한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중 복통 연관 질환은 총 14.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복통은 많은 원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어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복강 내에 위치한 위장관, 간, 신장을 포함한 요로생식계 등에서 주로 원인이 있지만, 폐나 심장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있으며, 당뇨, 갑상선 질환 같은 내분비계의 전신적 질병에 대한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다.

젊은 사람들인 경우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비특이적 통증이 가장 흔하지만, 노인인 경우 입원을 필요로 하거나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인 경우가 많아서 더욱 세심한 진료가 필요하다. 응급실에서는 급성 복통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가 시행된다. 복통은 여러 장기에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부터 감별하는 검사가 진행되며,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를 포함한 일반화학검사, 소변검사, 소변임신검사, X-RAY, 복부 초음파, 복부전산화단층촬영, 내시경 등 여러 검사를 통해 원인 질환을 밝혀내게 된다.

나이에 따른 복통을 유발하는 질환

출처 : (DE DOMAL FT. ACUTE ABDOMINAL PAIN IN THE ELDERLY 1994: 19: 331-335)



복통을 일으키는 소화기 질환



갑자기 발생한 심한 복통으로 병원의 응급실을 찾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담도와 췌장 질환이다. 이 두 가지 질환은 갑자기 심한 복통이 발생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중대한 합병증이 동반되어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응급실을 찾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담석증과 췌장염에 대해 살펴본다.

글. 유교상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과



전체 인구 5~10%에 달하는 흔한 질환, 담석증

담석증은 간으로부터 만들어진 담즙이 소장으로 배출되는 통로인 담관이나 담낭에 발생하는 돌(담석)과 연관된 질환을 일컫는데, 전체 인구의 5~10%가 담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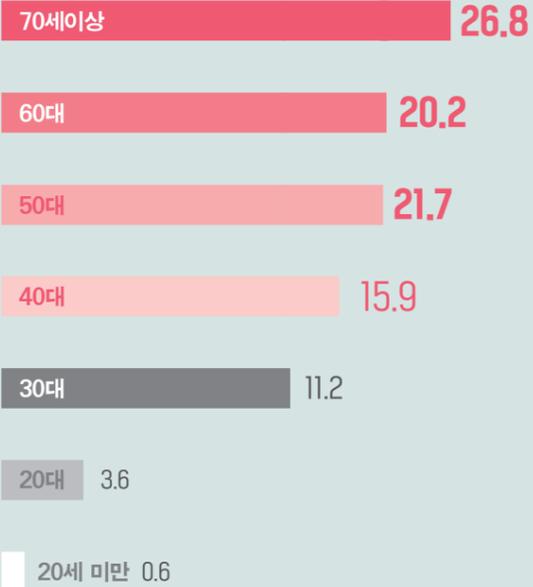
담석은 그 성분에 따라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는 색소성 담석이 많다. 그러나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과 식생활 환경 등이 점차 서구화되어 가면서 서양에서 많던 콜레스테롤 담석이 우리나라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우리나라 통계에서 20~30대의 환자도 전체 환자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최근 들어 점차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한편 담석이 발견되는 부위에 따라서 담석이 담낭 안에 위치하는 담낭담석과 담관에 위치하는 담관 담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담석증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복통이다. 담석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도성 통증은 주로 흔히 명치라고 부르는 상복부나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의 복부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대개 통증의 강도가 변화 없이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 꾸준히 지속되는 특징을 보인다. 병원을 찾게 되는 많은 환자들은 갑자기 심한 복통이 발생하므로 흔히 “급체했다”거나 혹은 “심한 위경련이 있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 스스로는 위나 장 등의 뱃속의 다른 장기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러한 담석은 그 위치에 따라 담즙이 배출되는 통로를 막아 합병증을 가져오기도 한다. 담낭 안에 있던 담석이 좁은 담낭관을 막아 복통과 함께 고열 등을 동반하는 담낭염을 유발하기도 하고, 담관 안에 있던 담석은 담관을 막아 황달까지 동반하는 담관염을 유발하기도 하며, 때로는 주변에 위치한 췌장으로부터 췌액이 분비되는 췌관까지 막아 담석성 췌장염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종 수일 내에 합병증이 진행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석의 위치에 따라 진단·치료법 달라져

이러한 담석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특징적인 통증, 담석증의 과거력 등이 중요하다. 담석의 위치에 따라 검사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주로 영상 진단이나 혈액 검사를 시행한다. 영상 진단 방법으로는 복부 초음파 검사가 일차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담낭담석의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 검사가 가장 좋은 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담관 담석의 경우 때로는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검

연령별 진료 인원 점유율(%)



사(CT) 혹은 내시경 역행 담체관 조영술(ERCP)이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에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한 자기공명 담체관 조영술도 담석증의 진단에 많이 이용된다.

담석증의 치료 방법은 담석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된 담낭담석의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복통이 동반되거나 담석으로 인하여 담낭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하여 담낭을 절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담낭의 제거는 최근에는 대부분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 시행되고 있다.

복강경 담낭절제술은 이전의 개복 수술에 비하여 수술 상처가 작고 수술 후에도 통증이 적으며 입원 및 회복 기간이 짧아 빨리 일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담관담석의 경우에는 담관염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치명적인 담관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단 당시 증상이 없더라도 담석을 제거해야 한다. 담관담석의 제거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을 통하여 제거한다. 내시경 역행 담체관 조영술(ERCP)이라고 하는 치료내시경 시술은 담관담석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단과 동시에 담관에 위치하는 담석을 제거할 수 있다.

한편 담관담석과 담낭담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시술로 담관담석을 제거한 후에도 담낭으로부터 담관으로 담석이 이동하여 다시 담관염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담관담석의 제거 후에 담낭절제술을 같이 시행해야 한다.

음주·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췌장염

췌장은 십이지장 근처에 위의 뒤쪽에 위치하여 비교적 복강 깊숙이 위치하는 장기이다. 췌장은 20여 가지의 소화효소를 만들어 소장으로 분비하여 소화를 돕는 역할과 탄수화물의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역할을 주로 한다.

급성췌장염은 췌장에 급성으로 발생하는 염증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술과 담석이다. 가장 흔한 증상은 복통으로, 보통 윗배가 심하게 아프고 등 쪽으로 통증이 전달되기도 하며, 음식을 먹거나 누운 자세에서는 복통이 더 심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급성췌장염의 진단은 이와 같은 특징적인 심한 통증, 음주력이나 담석증의 과거력 등이 중요하며 확진을 위하여 혈청 아밀라아제나 리파아제 등의 혈액 검사와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CT) 등의 영상 진단 방법 등이 이용된다.

급성췌장염은 종종 중증의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국소적인 췌장 괴사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 중의 하나이며 여기에 감염이 동반되는 경우는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매우 치명적이다. 또한 중증의 췌장염은 쇼크, 신장 기능부전, 호흡부전, 순환기 합병증 등과 같이 전신 합병증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매우 위험하다.

전체 급성췌장염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증 췌장염의 경우는 금식, 적절한 수액공급, 진통제를 투여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등의 보존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회복되는 반면, 나머지 20% 가량의 환자에서는 췌장의 심한 괴사 및 전신적인 합병증을 초래하여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췌장염 치료에 있어서 금식은 다른 병에서와 같이 단순히 검사를 준비하는 등의 목적이 아니며, 급성 염증을 앓고 있는 췌장을 쉬게 해줌으로써 염증의 악화 및 합병증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치료의 근간이 되며 다른 보조적인 약제의 투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적절한 치료로 호전된 이후에도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음주를 피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여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약 20%라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의 환자들은 췌장의 심한 괴사 등을 동반하며 전신적인 합병증을 초래하는 중증췌장염이며 이러한 경우 상당수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결코 만만히 볼 질환은 아니다.

수술을 요하는 급성복통



복통은 증상 자체가 굉장히 다양할 뿐 아니라 애매한 경우가 많아 경험 많은 의사라 할지라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의학적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이 병원을 찾아야 할만한 복통인지, 수술이 필요한 복통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복통일 때 급하게 응급실을 찾아야 하며 어떤 경우 응급 수술이 필요한 걸까?

글. 안병규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신속한 진단이 필수적인 급성 충수돌기염

“아, 배 아파”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만큼 복통은 응급실을 찾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다. 평생 복통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배가 아플 때마다 병원을, 특히 응급실을 찾지는 않는다. 몇 시간 혹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차차 좋아지는 경험을 하다 보니 소화제를 복용하거나 민간요법 등으로 집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다.

의학적으로 복통은 크게 내과적으로 약물치료를 하며 경과 관찰을 하는 복통과 외과적으로 수술 치료를 해야 하는 복통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외과적 수술을 필요로 하는 질환은 크게 출혈성 질환, 염증성 질환, 장 천공, 장 폐쇄, 허혈성 질환으로 나뉜다. 출혈성 질환에는 궤양 등에 의한 위장관 출혈, 외상에 의한 간, 비장 및 장간막 출혈 등이 있으며 염증성 질환에는 급성 충수돌기염, 급성 담낭염 및 급성 게실염 등이 있다.

위, 십이지장 궤양이 깊어지며 발생하는 궤양 천공 및 대장 게실 천공, 소장 천공도 수술을 요하는 질환이다. 장 유착 혹은 종양에 의한 장 폐쇄, 장이 꼬이며 발생하는 장 염전, 탈장 주머니로 빠져나온 장이 원위치료 돌아가지 않아 생기는 감돈 탈장은 장 폐쇄를 유발하는 질환이다. 소장 및 대장으로 가는 주요 혈관이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 막히는 장간막 색전증, 허혈성 대장염 등은 허혈성 질환에 속한다. 이러한 질환은 대부분 갑자기 복통이 발생하며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중 가장 흔한 질환은 맹장염이라고 알려져 있는 급성 충수돌기염이다. 일반적으로 충수돌기염은 간단한 병이라 생각되지만 사실은 증상이 매우 다양해서 경험 많은 외과 의사라도 쉽게 진단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체한 것처럼 메스꺼우며 명치 끝, 배꼽 주변이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고 염증이 진행되면서 점차 오른쪽 아랫배로 통증 부위가 옮겨간다. 이즈음 응급실을 찾아오면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완쾌되나 병원에 늦게 오거나 진단이 늦어져 충수돌기염증이 터지게 되면 복막염으로 진행하게 되며 이때는 열도 심하게 나고 통증도 심하여 수술도 힘들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충수돌기만 떼어내는 것이 아니고 대장절제까지 해야하므로 위와 같은 증상이 생길 경우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은 임상 증상과 신체 진찰, 혈액검사 소견으로 어느 정도 내릴 수 있지만 증상이 애매한 경우,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 초음파, CT 검사 등 영상의학적 검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복강

경으로 95% 이상 수술을 진행하나 이전에 수술 받은 과거력, 염증의 정도에 따라 개복 전환, 대장 절제 등의 수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내원 당시 이미 터져서 국소적인 복막염으로 진행되거나 고름집이 잡힌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항생제 치료 및 배농술을 시행하여 염증이 가라앉은 후 수술을 시행하는 간격충수절제술(Interval Appendectomy)을 하는 것이 좋다.

급성 담낭염 · 궤양 천공도 응급수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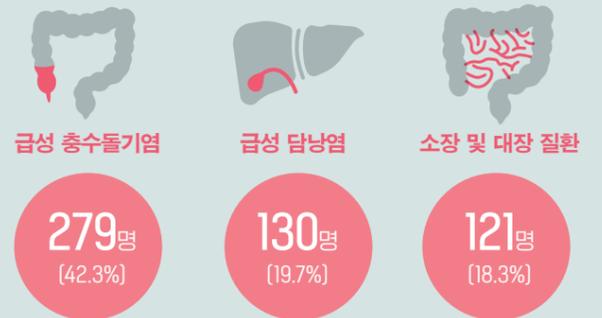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두번째로 흔한 질환인 급성 담낭염은 담낭 안의 돌(담석), 용종, 찌꺼기 등이 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오른쪽 윗 배의 통증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열을 동반하며 오른쪽 상복부 통증이 있을 경우 급성 담낭염이 아닌지 의심하여 통증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검사를 위해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초음파 검사와 CT 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되며 수술 역시 대부분 복강경으로 진행하는데, 염증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수술 후 하루 이틀 안에 퇴원이 가능하나 염증이 심하거나 터져서 담낭에 의한 복막염이 생긴 경우 패혈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한 병이다.

장 유착은 소장의 일부가 다른 부분과 들러붙으면서 장의 흐름이 끊기거나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전에 복부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며 과거력이 없는 분들도 과식을 하거나 급하게 폭식을 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장 내용물이 유착 부위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복통과 함께 배가 점점 불러오고 가스 및 변 배출이 안되며 울렁거리거나 토하는 증상이 발생한다. 쥐어짜는 듯한 복통이 1~5분 지속되다가 한동안 배가 덜 아프고 다시 같은 증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부분은 금식을 하며 장을 쉬게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등 보존적 치료만으로 호전되나 5~10% 정도는 수술적으로 치료해야 해결이 된다. 특히 복통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열이 나고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는 등 독성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응급수술을 시행해야 하며 자칫 수술 시기가 늦어질 경우 심각한 장 괴사가 발생하고 사망할 수도 있어 수술 시기를 정확히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궤양 천공 역시 수술을 필요로 하는 흔한 응급 질환 중 하나다. 평소 불규칙한 식사를 하거나 자주 속이 쓰린 증상을 가진 분들에게서 흔히 생긴다. 위 내용물이 복강 내로 새어 나오면서 복막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는 딱바로 누워 있기 힘들 정도의 심한 복통을 느끼며 배가 널빤지처럼 단단해지고 발열 증상이 동반된다. 환자의 평소 증상과 신체 진찰, 가슴 X-ray 촬영만으로도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하나 정확한 위치와 복강 내 염증 정도의 파악을 위해 CT 촬영이 필요하

2015년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을 통해 수술한 외과 질환 통계



다. 수술은 복강 내 세척, 천공 부위 확인 및 일차 봉합술을 시행하며 복강경 개복술 모두 안전하게 가능하나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는 추세다.

허혈성 질환 중 장간막 색전증은 평소 심장질환, 특히 부정맥이 있던 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혈전이 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큰 혈관을 막으며 생기는 병이다. 이 병은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진단이 어렵고 일단 발생하면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복통이 시작되면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데 이는 혈액공급이 차단되면서 장이 허혈, 괴사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수술을 하더라도 소장의 대량 절제가 불가피하여 단장증후군 (Short Bowel Syndrome)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기며 진단 혹은 수술이 조금만 늦어도 소생하기 힘들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열거한 질환들은 평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등의 원론적인 방법 이외에 예방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 다만 이전까지 경험한 복통에 비해 강도가 심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혹은 배가 불러오거나 열이 동반되는 급성 복통의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하는 것이 좋다.

급성 복통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에 대한 병력 청취와 의사의 손에 의한 신체 진찰이다. 경험 많은 외과 의사는 한번의 진찰로 환자의 복부에서 압통, 반발통, 복벽 강직 및 근성 방어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소견은 환자의 복통이 수술이 필요한 질환임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진찰 소견이다. 그러나 아무리 경험 많은 외과 전문이라 하더라도 한번에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수술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평소의 복통과 다른 복통, 다른 증상이 동반된 복통이 발생한다면 기급적 이른 시기에 응급실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심각한 후유증을 막기 위한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비뇨기과 복통



통증은 환자 진료에 있어 매우 흔하고 불특정적인 증상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문진을 하면 특정 질병을 예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상이다. 비뇨기과 영역에서 복부 통증은 매우 다양한 질병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복통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가지 동반 증상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해서 질병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비뇨기과 영역에서 통증과 동반될 때 눈여겨 보아야 할 증상들은 혈뇨, 배뇨 곤란 등이다.

글. 박성열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는 요로 결석

비뇨기과 영역에서 복통을 유발하는 질환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유병률도 높은 것은 요로 결석이다. 우리나라의 유병률은 약 2% 정도로 청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로 결석은 연중 가장 기온이 높은 시기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수분 섭취가 부족하고 서구 식이를 즐기는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요로 결석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결석이 있는 방향의 옆구리가 매우 극심하게 갑자기 아파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측복통 또는 산통이라고 표현한다. 요로 결석이 통증을 일으키는 원리는 소변이 지나가는 경로를 결석이 막으면서 신장이 부어 오르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결석이 걸린 위치가 아픈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결석이 있는 곳의 신장 주변으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장은 후복막강에 위치하지만, 앞쪽에 위치한 복강내 장기인 위장관을 자극하여 통증과 함께 오심, 구토, 복부팽만감 등의 복막 자극 증상도 같이 동반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육안적으로 혈뇨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며, 현미경적으로 검사하면 대부분에서 현미경적 혈뇨가 동반된다. 요석은 통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맹장염이나 척추 질환, 정형외과 질환으로 오인하여 여러 의료 기관을 거쳐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다.

요로 결석의 치료는 우선 통증을 조절하고, 결석의 크기가 크고, 위치가 자연 배출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이나 체외충격파쇄석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결석의 크기가 4mm 미만인 경우에는 자연 배출 가능성이 50% 이상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자연 배출을 기다려 볼 수도 있다. 요로 결석은 반드시 자연 배출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결석이 빠지지 않더라도 통증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신기능이 서서히 손상되어 심한 경우 신부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요로 결석 중 신장결석은 일반적으로 통증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 등을 검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한번 요로 결석이 발생한 환자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년 이내에 10%, 10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재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활 습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요로 결석과 매우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고열을 동반하는 질병으로 급성 신우신염이 있다. 급성 신우신염은 열성 요로감염의 일종으로 증상은 요로 결석과 매우 비슷하다. 급성 신우신염은 요로 결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심할 경우 패혈증을 일으켜 생명이 위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

요로 결석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생활 습관

수분 섭취 하루 **2L** 이상



풍부한 칼슘 섭취
구연산 섭취 권장 오렌지



엽산 섭취 제한
고칼슘뇨증의 원인



확한 진단과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수적이다. 요로 결석과 매우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면서 교통사고 등의 사고나 충격이 동반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장 손상을 의심하여야 한다. 신장은 여러 층의 근육과 단단한 흉곽(갈비뼈)에 둘러 쌓여 있어서 쉽게 다치지는 않지만 점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여가 활동으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비뇨기과 전체 입원 환자의 약 1%를 차지한다. 치료는 대부분 대증치료이지만 생체 징후가 안정되지 않을 정도의 손상의 경우에는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복부 통증을 일으키는 급성 방광염 · 요폐

하복부 통증을 일으키는 비뇨기과 질환도 있다. 급성 방광염의 경우, 간헐적이지만 매우 심한 하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 보통 방광 자극 증상으로 배뇨통, 빈뇨, 잔뇨감 등이 동반되며 심하면 육안적 혈뇨를 동반한다. 증상은 매우 자극적이지만 경구 항생제에 잘 반응하고 생명에 지장을 주는 일은 드물다.

소변을 갑자기 보지 못하는 급성 요폐의 경우에도 매우 심한 하복통을 유발한다. 소변을 아무리 보려 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고 하복부에 심한 팽만이 생겨 마치 딱딱한 풍선이 배에 들어간 것처럼 만져지는 경우에 급성 요폐를 의심할 수 있다. 급성 요폐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고 도뇨관을 삽입하여 정체된 소변을 빼내고 약물 치료를 받아야 정상화될 수 있으며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반복적으로 급성 요폐가 발생하면 방광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없는 신경인성 방광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급성 요폐와 비슷한 증상

을 나타내면서 교통사고 등의 사고나 충격이 동반된 경우에는 반드시 방광 손상을 의심하여야 한다.

방광 손상은 방광이 소변으로 가득찬 상태에서 외부에서 충격을 받을 경우 풍선이 터지듯이 방광이 파열되는 병이다. 일반적으로 혈뇨가 동반되고, 소변을 보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복강 내 방광 파열이 발생하면 복강 내로 소변이 유출되어 복막염을 일으키고 장 유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

회음부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거나 골반뼈가 부러진 경우 요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요도 손상의 경우 급성 요폐와 마찬가지로 소변을 볼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하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요도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요도구에 피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도 손상의 경우, 함부로 도뇨관을 삽입하면 오히려 요도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도조영술을 통해 요도 손상의 유무, 정도를 파악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

부분 요도 손상의 경우 방광요도내시경을 이용하여 도뇨관 삽입을 시도할 수 있으나, 완전 요도 파열의 경우, 응급으로 치골 상부 방광루를 먼저 설치한 후, 내시경 수술을 통한 요도정렬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내시경 수술이 실패할 경우 3개월 이상 지난 후 상처가 안정이 되면 요도성형술을 시행한다. 요도 손상은 요도 협착, 요실금, 발기부전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복부 통증을 일으키는 비뇨기과 질환은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 통증의 정도가 심하여 응급실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측복통이나 하복통이 있으면서 배뇨 곤란이나 혈뇨를 동반한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질환을 염두에 두고 진단해야 한다. ㉠

앞서가는 기술을 펼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핫이슈를 소개합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단 하나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개소식

지난 1월 18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의 문을 열었다. 2015년 11월, 7년 만에 분만실을 재개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 국고지원금을 포함해 약 10억 원의 비용을 들인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의 개소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알린 것.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구리, 남양주, 서울 동북부 권역 내 유일한 대학병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위상을 높이는 작지만 위대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글: 박한나 사진: 노상욱

사랑의 실천, 꿈은 이루어진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4층 말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앞 복도에 기분 좋은 설렘이 감돌았다.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개소식을 앞두고 일찍부터 김재민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지역 네트워크 산부인과 병원의 관계자들,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였다.

“작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로 선정된 이후 리모델링 기간을 거쳐 드디어 문을 열게 돼 무척 기쁩니다.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산부인과 분만진료와 함께 시설 미비로 이 지역의 관련 중점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이 지역에 늘어드는 고위험 산모들과 미숙아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대학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김재민 병원장의 환영 인사말로 개소식이 시작됐다. 재작년 산부인과 분만실 운영을 재개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올해 초까지 기존의 신생아 집중치료실 7병상을 12병상으로 늘리고 간호 인력과 전임의 등을 충원해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개소를 위해 힘써왔다. 특히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로 선정되면서 시설비로 7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최대 4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병원 자체적으로는 2억 5천만 원의 시설비가 투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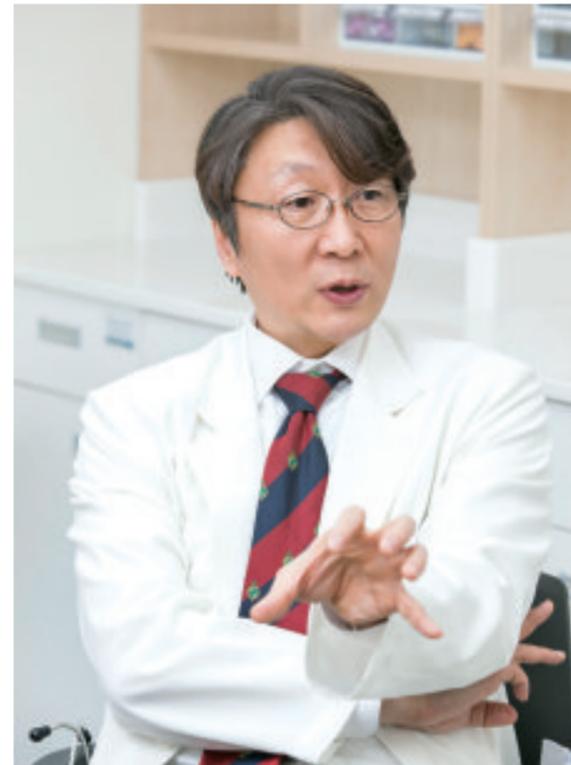
김경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오랜 기간 침체됐던 산부인과를 포함해 우리 병원을 찾는 신생아와 미숙아들을 면밀하게 치료할 수 있는 든든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학교 건립이념이 ‘사랑의 실천’인데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개소를 통해 이 지역에 또 하나의 사랑을 실천한 셈입니다. 앞으로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유난히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개소식을 맞은 이가 있었다.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개소에 이르기까지 병원 안팎으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김창렬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센터장이었다. 1995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개원부터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해 김창렬 센터장은 분만실 재가동을 비롯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 사업을 통과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분만진료가 중단된 지난 7년 동안 무척 괴로웠는데 산부인과 분만이 다시 시작되면서 미숙아 치료도 늘게 됐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면서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개소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필요성을 공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병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생아 집중치료실 김양욱 수간호사님이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꿈을 품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뤄진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년을 맞을 때까지



드디어 문을 열게 돼 무척 기쁩니다.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산부인과 분만진료와 함께 시설 미비로 이 지역의 관련 중점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이 지역에 들어가는 고위험 산모들과 미숙아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대학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진료하겠습니다.” 순간순간 감격에 겨운 김창렬 센터장의 소감이 이어지자 개소식에 참석한 이들의 뜨거운 박수와 격려가 터져 나왔다.

24시간 집중 커버시스템, 최신 인큐베이터 기기 갖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24시간 집중 커버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센터 중앙 모니터를 통해 모든 신생아의 혈압 및 산소포화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각지대였던 격리실은 CCTV 설치를 통해 언제든지 환자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미숙아와 2500g 미만 저출생 체중아의 집중 관리, 치료 등에 최적화된 최신 인큐베이터는 물론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만을 위한 심장초음파, 뇌 초음파, 청력검사, 저체온 치료 기기들을 새롭게 마련했다. 분초를 다투며 생명의 기로에 선 미숙아 치료를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춘 것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내 소아심장, 소아신경, 소아내분비대사, 소아혈종 등 타과 전문의와의 협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지역 내 15곳 이상의 분만병원과 협

력병원 이송시스템을 갖춰 더욱 폭넓은 진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엄마의 자궁이 가장 좋은 인큐베이터인데, 자궁에서 미리 떨어져 나온 미숙아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살아내야 합니다. 미숙아 분만이 예상될 시 조기진통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가 갖춰진 병원에 산모를 신속하게 이송한 후 분만해야 예후가 가장 좋습니다.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출생이 우려된다면 안심하고 저희 병원을 찾아주세요. 단 하나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료함으로써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곧 산부인과에도 좋은 교수님이 새로 오신다는 기쁜 소식이 들리네요.”

김창렬 센터장은 자신의 은사이자 혈액종양 분야의 권위자인故 이항 교수의 권유로 신생아 진료를 선택한 후 미국 브라운 대학 로드아일랜드 모자병원에서 총 5년 동안 임상과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신생아학 임상 전임의로서 신생아집중치료실, 분만실, 병원간 신생아중환자 후송팀, 신생아실을 오가며 신생아학과 주산기학에 대한 임상 수련을 받았다. 그는 ‘생명에 대한 존엄이 없는 학문이나 종교는 진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슈바이처의 말을 인용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환자를 사랑하는 환자 중심의 진료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전했다.

“미숙아도 생명체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숙아 유기 사건 등은 그 자체를 생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죠. 의학적 통계나 예후를 떠나 기적으로 생존하는 미숙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명의 오묘함과 경외심을 배울 수 있게 됐어요. 제가 한 생명도 소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집중치료지역센터 넘어 주산기센터로 나아갈 것

김창렬 센터장에게는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이후 다음 목표가 있다.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를 산부인과와 신생아 분야를 아우른 주산기센터로 확장, 개소하는 것이다. 이는 임신부와 분만, 신생아 생존 및 치료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그의 오랜 철학과 함께한다. 정부가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 사업 이후 구상 중인 것이 주산기센터라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출산율을 낮아지고 있지만 산모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각종 환경 문제들로 인해 고위험 산모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영아사망률은 미국보다 낮지만 모성사망률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 의료수준이 높아졌음에

도 산부인과 의료 수가 문제 등 보건정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부인과 교수님과 함께 주산기센터를 열고자 합니다. 숙련된 의료진과 최신 기기, 오랜 경험을 통해 고위험 산모의 사망률을 낮추고, 미숙아의 생존율을 높이며, 미숙아 생존 이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 제 목표는 그것뿐입니다.”

정부 정책에 부응하면서 분만을 활성화하여 신생아 진료를 늘리고, 이 지역에 건강한 산모와 아이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는 김창렬 교수. 그에게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분만이 중단되기 전, 매년 어린이날에 진행했던 미숙아들의 졸업생 모임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20년 전 700g으로 태어난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 다시 찾아왔을 때 굉장히 뿌듯했어요. 미숙아 졸업생 모임이 제겐 큰 보람이었죠. 앞으로 우리 병원에서 태어난 미숙아 졸업생 모임이 제게 되어 그 기쁨과 보람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각박한 시대 속에서 생명을 생명으로 바라보고 돌보는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의 진정한 가치가 마음을 울린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위대한 발걸음을 응원하며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도 순탄하게 이뤄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친절한' 설명으로
그 치료법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지난 밤, 그를 영원히 잠들게 한 병

영국 팝 스타 조지 마이클의 '심부전'

바로 어제, 오늘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고작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종종 있다.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만, 그 허무와 공허의 이면은 후회 없는 오늘을 위한 건강한 노력을 이끌기도 한다. '심부전'은 하룻밤 사이 한 생명을 사망으로 이끄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그리고 지난겨울, 우리는 이 질환으로 또 한 명의 위대한 뮤지션을 떠나 보냈다. 글. 조정화



George Micha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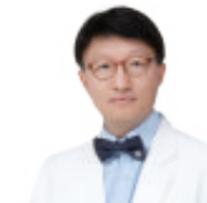
2016년 12월 25일, 영국의 팝 스타 조지 마이클이 자신의 노래 제목 'Last Christmas'처럼 크리스마스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향년 53세. 그의 팬들도, 그 자신도 죽음을 준비하기엔 아직 이른 나이였다. 조지 마이클은 1981년 절친한 친구와 듀오 웬(Wham!)으로 데뷔한다. 웬의 모든 음악을 작곡 및 프로듀싱한 그의 실력은 곧 빛을 발했고, 싱어송라이터로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다. 1987년 솔로 데뷔 앨범 <페이스(Faith)>는 수록곡 중 4곡이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으며, 이를 통해 그는 마이클 잭슨, 프린스, 마돈나와 함께 1980년대를 이끄는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한다. 크리스마스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Last Christmas'를 비롯해 'Wake Me Up, Before You Go Go', 'Listen Without Prejudice' 등 지금까지도 그의 음악은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으며, 앨범은 현재까지 약 1억 장 이상 판매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비록 마약 문제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에이즈 감염자 지원단체와 암 센터 후원, 어린이 후원센터 차일드 라인에 자신의 곡인 'Jesus to Child' 저작권 양도 등의 선행 또한 꾸준히 이어왔던 조지 마이클. 2012년에는 런던 올림픽 폐막식 공

연에 오르며 건재함을 과시했던 그를 사망으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심부전'이었다. 심부전은 심장의 이상으로 신체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일어나는 질환이다. 조지 마이클이 사망한 지 이틀 후인 12월 27일 영화 <스타워즈>에서 레아 공주역을 맡았던 캐리 피셔 또한 심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할리우드 대표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故 김영삼 대통령도 같은 질환으로 사망했다. 심부전은 환자의 30~40%는 1년 이내에, 50%는 5년 이내에 사망에 이를 만큼 암보다도 높은 사망률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질환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호흡곤란을 느낀다면 심부전을 의심해야 한다. 심한 피로감과 운동 능력 저하, 부종 증상도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심히 살펴야 한다. 심부전은 대부분 약물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이는 완회일 뿐이며 한번 걸리면 완치가 어려우므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주·금연은 기본이며, 평소 싱겁게 먹고 하루 20~30분씩 일주일에 3~5회에 걸쳐 운동하는 생활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치료법 선택해야

신진호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



Heart Failure

원인 질환의 치료가 한계에 도달한 결과, 심부전
심부전은 심장의 기능이 나빠져서 혈액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결과로 불편한 증상을 겪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부분의 심부전은 심부전의 원인을 제공한 심장질환을 치료하던 중 더 이상 회복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어 원인질환 치료가 한계에 도달한 결과이다. 심부전은 수축기능이 저하된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데 기능이 심각하게 나빠지면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부전 환자가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심부전의 원인 질환의 특성과 심장 기능의 악화 정도에 따라 대부분 결정된다. 궁극적으로 말기로 진행되면 심장이식과 같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해진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법 상이해
심부전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을 이용한 치료법으로 나눌 수 있다. 약물치료는 모든 심부전 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이며 숨찬 증상이나 부종과 같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이노제 치료와 생존율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약물치료가 있다. 약물치료 경과 중에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주 진료를 받으면서 세심하게 치료해야 한다. 다양한 수술을 이용한 치료법도 이용되는데 각각의 수술에 따라 치료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치료 대상이 되는 환자를 잘 선택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담당의사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대표적인 수술을 이용한 치료로 심실재동기화 치료와 삽입형 제세동기 치료가 있다. 심실재동기화 치료는 심실의 수축을 유도하는 신호가 띄엄띄엄 전달되는 것을 동시에 전달되도록 조정하는 치료이고 삽입형 제세동기 치료는 심실기능이 매우 나쁜 환자에서 발생하는 심실세동을 자동으로 제거하여 급사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이다.

심부전의 원인 질환
심부전의 원인 질환으로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은 뇌졸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정맥으로 심부전 치료뿐만 아니라 뇌졸중을 예방하는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

상호 협력하는 의술로
고객의 건강과 삶을 돌보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최고
협력병원을 소개합니다.

동네의원이 사랑을 실천하는 법

한양대학교병원 협력병원 진광준외과의원

초등학생 때 '죽음'을 처음 알게 된 소년이 있었다. 가족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너무 슬펐다. 그래서 '평생 죽지 않는 약을 가족 수만큼 만들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했다. 훌륭한 의사가 되면 그런 약도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장래희망란에 '의사'라는 직업을 써넣기 시작했다. 꿈을 이루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 중인 '수술하는 동네 의사, 진광준 원장'을 만났다. 글. 윤진아 사진. 김지원



수술하는 동네 의사의 꿈

2009년 문을 연 진광준외과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미니 종합병원'으로 통한다.

"한 환자분이 며칠에 걸쳐 여기저기 아픈 곳을 다 치료받고는 '종합병원의 여러 진료과를 다 들른 기분'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 그 말이 참 고맙고 뿌듯했어요. '어디든 아플 땐 일단 믿고 들릴 수 있는 동네의원'이 바로 우리의 지향점이거든요."

진광준외과의원에는 피지낭종, 연부조직종양(지방종, 근육종, 신경종, 혈관종, 섬유종, 임파선종 등) 제거 수술 환자가 많이 찾는다. 치핵, 서혜부 탈장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개원 10년이 채 안 돼 지역주민들에게 굳건한 신뢰를 얻은 비결은 진 원장의 남다른 오지랖과 정성에 있다.

"4년 전 내원했던 중국동포는 미안하게도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 '덕분에 새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인사합니다. 우측 둔부에 있던 피지낭종으로 인해 농양이 생긴 케이스였는데, 절개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치료한 탓에 피부누공이 양측 둔부, 허리근육, 대퇴근육까지 파고들었던군요. 절개술을 거듭 시행하다 보니 허리부터 후대퇴부까지 모두 열려있는 상황이 됐는데, 8개월간 입원 치료하며 정성을 쏟아 결국 완치됐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원

1년에 1,000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하는 진광준 원장의 '수술 가위 잡는 법'은 오랜 경험이 응집된 노하우다. 췌장암 수술 권위자였던 故 김용일 한양대학교병원 교수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수술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지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위를 잡으면 받아서 잡고 구멍에 손가락을 끼우느라 시간도 걸리고, 그 과정에서 떨어뜨릴 염려도 있거든요. 레지던트 시절, 김용일 교수님은 '외과의사는 수술할 수 있는 내과의사라고 정의하시고는 '그러려면 무슨 책임은 봐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동네의원은 질병이 발생하면 처음 진료를 담당하는 곳이자, 정확한 진단으로 향후 치료방향을 제시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몸 전체에 대해 박학다식해야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군의원 전역 후 '연천군 1호 전문의'로 시골의원을 운영했던 진광준 원장은 위암, 대장암, 담석증 및 다양한 응급외상 환자를

진광준외과의원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14 화성빌딩 2.3층
문의 : 02-452-6556



직접 치료했다. 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심전도, 정형외과 수술 경험은 큰 자산이 됐다.

"외과 전문의이지만 정형외과, 내과, 비뇨기과, 피부과 진료도 가능한 만큼, 할 수 있는 한 환자의 아픈 곳 여기저기를 해결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제가 해결하지 못할 케이스라면 한양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를 알려드리거나 직접 연결해드리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달 평균 5~6명의 환자가 진광준외과의원에서 한양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한다.

"중앙내과 이영열 교수님, 흉부외과 정원상 교수님을 비롯해 이비인후과 박철원, 김경래, 태경 교수님, 소화기내과 이학락 교수님, 산부인과 최중섭, 호정규, 이원무, 비뇨기과 이춘용 교수님께 믿고 환자를 의뢰하고 있지요.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과 시스템 덕분에, 한양대학교병원 전원 환자들은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입니다. 환자의 지인 중에 중환자가 생기면 한양대학교병원에 소개해달라는 부탁도 종종 받는다니까요(웃음)."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질병은 더 다양하고 깊게 퍼져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다행인 것은, 그 최전선에 믿음직한 동네의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오지랖 넓고 잔소리 많은 '우리 동네 주치의' 진광준 원장의 매의 눈과 따뜻한 손끝에서, 동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건강이 지켜지고 있다. "낮은 수가가 장벽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껏 해온 것처럼 건강보험 진료 위주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 체력이 되는 한 '수술하는 동네 의사'로 오래오래 지역주민들의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80세까지 수술하는 게 목표인데, 가능할까요? 꼭 해내고 싶습니다(웃음)."

인간의 본성에 던지는 익살스럽지만 무서운 질문



Wolfgang Amadeus Mozart Opera <Così Fan Tutte> Kv.588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작품번호 588

‘코지 판 투테(Così Fan Tutte)’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제1막에 나오는 바질리오의 대사를 제목으로 한 희극 작품이다. 여자의 정절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자 그렇다면 누가 맞는지 연극을 통해 알아보려는 남자들의 바보 같고 유쾌한 장난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전 2막으로 구성되며 내용의 재미는 물론 로코코풍의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는 오페라 부파(opera buffa: 희극 오페라의 한 양식)로 모차르트가 죽기 1년 전 초연됐다.

여성의 정절을 시험한다는 짓국은 내용 때문에 19세기에는 부도덕한 내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오늘날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오페라가 되었다. 당시 사건은 빈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로 <피가로의 결혼>과 <돈 조반니>를 썼던 로렌초 다 폰테(Lorenzo Da Ponte)의 대본을 바탕으로 모차르트가 1790년 작곡하였고, 같은 해 1월 26일 빈의 부르크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오페라의 제목인 ‘코지 판 투테’는 작품 속 등장인

물인 철학자 알폰소가 말한 대사로, 이탈리아어로 ‘여자란 모두 똑같이 행동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행동’이란 바람기를 뜻하는데, 오페라의 제목이 <여자는 다 그래>로 번역되기도 한다. 인간의 참을 수 없는 불안 전함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어 이해 못 할 내용이라며 고개를 가우뚱하게 되면, 모차르트의 위대한 교묘함에 속은 것이다.

이후 약 100년 가까이 외면받았던 이 오페라는 1888년 독일어 번역 공연 이후 새로이 관심을 얻었고 1960년대 이후 가장 사랑받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조역이 없는 6인극이라는 독특한 구성인 세 남자와 세 여자 사이의 사랑이야기가 조금은 비속적이고 통속적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모차르트의 특유의 익살스러움과 당시 유행했던 오페라 부파 양식을 전형적으로 들려주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제1막 제1장 카페에서 나폴리의 청년사관 페르란도와 구리엘모는 각각 도라벨라와 피오르딜리지 자매와 약혼한 사이다. 노총각 철학자인 돈 알폰소가 “여자는 변하기 쉬운 것”이라고 주장하자, 두 사관은 이를 반대하며 항의하는데 돈 알폰소가 내기를 제안하자 찬성하며 자기들 애인의 절개를 믿고 있다. **제2장 해변이 보이는 정원**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 자매는 서로의 애인을 기다리고 있다. **제3장** 이때 돈 알폰소가 나타나, 두 사관이 지금 출정명령을 받고 곧 부대에 돌아가야 한다며 이들을 부른다. **제4장** 두 쌍의 연인들은 슬픈 눈물의 이별을 하고 서로 포옹한다. **제5장** 해변에 배가 닿자 병사들은 행진곡을 합창하고 여인들은 울면서 마지막 이별을 노래한다. **제6장** 돈 알폰소는 두 연인을 위로하며 삼중창을 노래한다. **제7장** 돈 알폰소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퇴장한다. **제8장 자매의 집** 실내 시녀 데스피나가 일이 많다고 투덜거리고 있다. **제9장** 두 자매가 그녀들의 연인이 떠나 버렸다고 울먹이자 데스피나가 위로한다. **제10장** 돈 알폰소는 그녀들을 위로한다며 두 외국인을 그녀들에게 소개한다. **제11장** 변장한 두 사관이 나타나 사랑을 고백하자 데스피나는 짜증을 내며 나가 버린다. 피오르딜리지도 자기들은 약혼한 몸이라며 거절하고 자기들은 사랑에 충실하다는 아리아를 노래하자 이어 구리엘모도 사랑을 구하는 아리아를 부른다. **제12장** 그녀들이 화를 내며 나가고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기뻐하자 돈 알폰소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삼중창이 벌어진다. 페르란도는 아리아를 부르며 퇴장한다. **제13장** 돈 알폰소는 데스피나에게 새로운 계획을 지시한다. **제14장 잔디가 있는 정원** 두 자매는 연인들을 생각하며 아리아를 부른다. **제15장** 두 외국인이 약병을 들고 음독자살을 하려고 하자 두 자매는 놀란다. **제16장** 알폰소가 자살을 못 하도록 막자 청년들은 쓰러지고 돈 알폰소는 이들을 부탁하며 의사를 부르러 간다. 잠시 후 의사로 변장한 데스피나를 데리고 온다. 자매에게 안겨 있다가 정신을 차린 두 사관은 자매에게 키스를 청한다. 돈 알폰소가 키스해주라고 그녀들에게 권하자 단호히 거절한다.

제2막 제1장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의 방 데스피나는 두 자매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퇴장한다. **제2장** 도라벨라는 사실 피오르딜리지의 약혼자 구리엘모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자 언니인 피오르딜리지도 도라벨라의 약혼자 페르란도를 택한다. **제3-4장** 돈 알폰소는 데스피나와 함께 두 쌍의 만남을 성공시킨다. 도라벨라와 구리엘모, 피오르딜리지와 페르란도가 짝이 되고 피오르딜리지와 페르란도는 사라진다. **제5장** 도라벨라와 구리엘모 둘만 남아 사랑을 확인하는데 구리엘모는 도라벨라의 약혼자인 페르란도를 불쌍하게 보며 이중창을 부르고 끝난다. **제6장** 피오르딜리지가 완강히 거절하자 페르란도는 구애의 노래와 함께 퇴장한다. **제7장** 홀로 남은 그녀의 마음도 흐트러지며 애인을 그리워한다.

제8장 한편 두 사관은 그들의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며 애인의 마음이 변했다며 화를 낸다. 도라벨라는 사랑의 즐거움을 노래하지만 피오르딜리지는 변심한 것을 질책한다. **제9장** 돈 알폰소는 도박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면서 두 사관을 위로한다. **제10장** 그들이 돈 알폰소에게 화를 내자 그는 ‘여자란 모두 그래’를 노래하며 그녀들을 변호한다. **제11-12장** 피오르딜리지가 연인을 찾아 전쟁터로 가겠다고 변장을 하고 있는데 변장한 구리엘모와 페르란도, 돈 알폰소가 들어온다. **제13장** 그녀들을 좀더 끌려주기 위해 연극을 꾸민다. **제14장** 데스피나를 공중인으로 분장시켜 내세운다. **제15장** 결혼 축하 노래를 부른다.

제16장 피오르딜리지와 페르란도, 구리엘모와 도라벨라가 등장한다. **제17장** 돈 알폰소가 나타나 변장한 공중인인 데스피나를 불러 결혼서약서에 동의를 받는다. **제18장** 이때 개선험창이 나오면서 돈 알폰소가 약혼자들이 귀환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네 사람은 놀라 당황한다. 두 사관은 애인들과의 재회를 기뻐하지만, 그녀들의 얼굴은 창백해지며 참회하는 이중창을 부르자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함께 육중창 노래를 부르고 돈 알폰소는 두 쌍의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여 결혼시키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



글. 오재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오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판타지 로맨스, 그리고 시간을 넘어선 재난의 극복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떠난 영화의 여정

“그를 떠올리며 잠들었기에 꿈에 나오는 걸까. 꿈이라고 알았다면 눈을 뜨지 않았을 것을.” 8세기 말부터 400년간 지속된 일본 헤이안 시대 최고 시인 중의 한 명인 여류작가 오노노 코마치의 고전 시가 모음집(만연집)에 나오는 구절이다. 일본학을 전공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영감을 얻어 그동안 천착해 온 기억의 복원과 상실의 복구 작업에 인간의 의지로 재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로의 창조를 덧붙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2017)**의 소재이기도 하다.

잠에서 깨면 서로 몸이 바뀌는 소년, 소녀가 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꿈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구체적이고 선명한 흔적을 남긴다. 학습장에 “너의 이름은?”이라고 적기 시작하면서 서로 간에 규칙을 정하고 그날그날의 일기를 핸드폰에 기록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 공간만을 치환한 것 같던 이 둘의 공존은 1,200년 주기의 혜성이 소녀 미츠하가 사는 시골 이토모리의 호수를 덮치는 날 3년의 세월 차이를 두고 멈추게 된다. 미츠하는 소년 타키 앞에 나타나지만 몸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너무 일찍 모습을 보였고 소년은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에야 너무도 늦게 그 사실을 알아챈다. 시간과 공간은 다른 물성을 지닌 물리적 개념이지만 결국 연속성이란

공통성을 가진 정념의 오브제이기도 하다. 마을 제사를 위한 사제로서 봉헌하는 소녀의 침으로 봉인된 발효주에도 정념은 깬다. 미츠하의 할머니는 소녀에게 말한다. “꼬이고 영키고 때로는 돌아오고 끊어지고 다시 이어지고 그것이 무스비, 그것이 시간이란다.” 우주만물이 이어져 있다고 말하는 감독이지만 전작에서 이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거리와 시간의 장벽 앞에 놓인 주인공들은 8년 만에 문자 메시지가 수신했더라도 **(별의 목소리)**, 2주에 걸쳐 쓴 편지가 눈보라에 휩쓸려 가더라도 **(초속 5센티미터)** 서로의 연결끈을 놓지 않으려 애쓴다. 하지만 전작과 달리 소년은 운명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게 된다. 혜성이 떨어지는 날 소녀와 몸을 바꾸는 타임슬립을 시행한 후 친구들과 모의하여 발전소에 불을 내고 재난방송을 내보내 사람들을 학교건물로 피신시키려 한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낮은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낙하하는 혜성(침몰하는 세월호)은 위험하지 않으니 자신의 위치(객실)에 대기하십시오.”라는 동사무소(선상 조정실)의 마이크 소리를. 시간을 거슬러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살려내려는 노력은 이미 **슈퍼맨 II(1980)**에서 겪은 바 있다. 여기서 로이스가 지진으로 인해 자동차 안에서 절명하자 클라크는 지구의 자전 반대방향으로 돌아 시간을 되돌리

는 전대미문의 슈퍼액션을 선보였다. 이런 기시감은 100% 천재지변인 동일본지진 사태를 겪은 일본과 100% 인재사고인 세월호를 겪은 우리에게는 남의 일로 보이지 않는다. 관계의 단절로 상실을 경험하는 데서 이야기가 끝을 맺었다면 이 영화는 무난한 로맨스 애니메이션으로 치부되었을 터인데 주인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반전을 이끌어 내는 재난 극복기이자 이미 점지된 운명을 초월하는 시간을 뛰어넘는 소영웅의 서사시로 탈바꿈하는 기적을 선보이는 마법과 판타지였기 때문에 주목받았을 것이다.

장기불황으로 잉태된 일본의 사토리 세대는 현실성과 합리성을 그 배경으로 깔고 있다지만 결국 장기적인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절망감과 반자본주의를 지닌 신인류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서브컬처인 세카이계로 대변되는 세계의 위기 앞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소를 소거한 채 나와 나만의 사적인 관계성에 집중하는 일본의 냉소주의를 타파하는 감독의 진전된 한 걸음으로 읽힐 수도 있다. 혜성이 떨어지던 날 신비한 존재를 만나게 된다는 황혼이 찾아왔을 때 소년과 소녀가 서로의 존재를 온 감각으로 짧게나마 각성하게 되는 순간, 찰나의 교감은 희미해져 가는 기억에 대해 서로의 손바닥에 이름을 적기로 하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완수되지 못한다. 소년은 소녀의 손바닥에 쓴 것은 이름 대신 “널 좋아해.”였다. 이런 접근은 참신하다.

할리우드에서도 특별한 공간과 시간에 갇힌, 그러나 미국식 영웅주의는 완전히 해체되지 못한 우주적 SF 로맨스 영화가 있다. **패시저스(2016)**는 120년간 동면이 예정되어 새로운 행성으로 향하는 우주선 안의 탑승객 중에서 기계 오작동으로 먼저 깨어난 짐이 1년간 혼자가 되어 미칠 듯이 외로워하다가 고의로 깨운 오로라와 함께 보낸 짧은 시간을 그려낸다. 오해와 위기 속에 결국 동면캡슐 속에 들어가지 않기로 작정한 둘은 지상의 일을 재현하게 된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짐이 심어 놓은 나무가 울창한 숲이 되고 오로라가 기록한 일지가 깨어난 승객들 앞에 낭

독된다. 재난 앞에 놓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딱히 없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채 울고 웃을 수 있는 감정을 가진 또 하나의 나(alter ego)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걸로 만족할 뿐이다. 인간은 홀로 지내기 불가능하여 감정을 공유하는 존재를 갈망하는 사회적 동물일 수밖에 없다.

자신이 지키던 주군의 칼날을 맞았으나 심장에 칼이 꽂힌 채 불멸의 생을 살아가게 된 939년 묵은 도깨비는 생일축하 케이크 양초를 끄던 소녀 앞에 강제로 소환된다. 거기다가 기억상실증 저승사자의 도래, 이 둘과 동거하게 된 도깨비 김신은 이전에는 맞보지 못했던 새로운 매일매일 일을 겪게 되지만 행복한 기억이 늘어날수록 불멸의 삶을 끝내는 신탁을 이루는 일에 주저하게 된다. 사랑하는 이를 옆에서 지켜주는 **도깨비(tvN, 2016)**는 ‘나홀로족’이 대세인 요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연인으로 항상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도깨비 신부의 옆에 언제나 함께 하는 든직한 존재이다. 도깨비 김신은 신탁에 임하면서 말한다.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사랑하는 이의 개인적 재난을 몸으로 뒤흔겨낸 연인에게 모든 행복한 순간은 이유가 필요 없다.

아인슈타인은 같은 물리학자이자 오랜 친구였던 미켈레 베스가 죽은 후 그의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이제 그는 저보다 조금 앞서서 기이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물리학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구별은 끈질기게 지속되는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아인슈타인도 세상을 떠났다. 삶은 반복되는 상실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어떤 것을 잃은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 채우려 하지만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과의 이별, 재산, 그리고 죽음까지도. 많은 죽음을 접하는 의사지만 직무를 다하는 순간까지도 이러한 상실감은 떨쳐버리기 불가능한 가슴 아픈 업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위한다. 삶과 죽음은 형태를 달리한 존재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



블 만 한
M o v i e

너의 이름은(2017)

패시저스(2016)

슈퍼맨2(1980)



글.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 교수는 기자를 꿈꾸었던 학생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살려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쉽지만 깊이 있는 까닭은 흥행 영화부터 예술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틈틈이 영화 전문서적을 읽어온 내공 덕분이다.

명작을 남긴 화가의
질환이 작품과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르누보의 천재화가 알폰스 무하, 폐렴에 쓰러지다



글. 김상현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알폰스 무하는 '아르누보(Art Nouveau)' 양식을 대표하는 작가로 프라하와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포스터, 실내 장식 등 일상생활에 회화를 접목해 실용 미술을 순수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3년 전 국내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알폰스 무하의 작품이 최근 다시 한국을 찾아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Gismonda, 1894



Moët & Chandon - Crémant Impérial, 1899



Hamlet, 1899

그림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Alphonse Mucha



알폰스 무하, 아르누보 미술의 정점

체코 프라하는 중세 유럽의 정경과 분위기를 간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유명한 도시이다. 이 도시가 자랑하는 것은 단지 건축물과 야경, 음악만이 아니다. 프라하에 갈 때에는 반드시 들르게 되는 프라하성의 성 비투스 성당에서 무하의 스테인드글라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무하 박물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무하는 체코의 천재적인 화가이자 흔히 아르누보 아이콘으로 불린다. 공연 포스터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그의 그림들은 세기말의 대유행을 이끈 문예사조인 아르누보 양식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처음 당대의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신선함을 선사한 그의 그림들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의 영향이 이후 건축, 공예, 포스터 등 여러 방면의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림에 무하 작품의 순정 만화 같은 특징이 온전히 녹아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체코뿐 아니라 프랑스, 미국 등에서 활동하였던 그는 나치 독일에 저항한 체코 민족주의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79세의 고령에 프라하를 점거한 독일군에 검거되어 여러 차례 심문을 받았고 결국 그 와중에 얻은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폐렴, 조기에 정확한 진단이 필수

무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폐렴은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가볍게 감기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노인이나 여러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기능이 떨어지면 사망 위험이 크다. 폐렴이란 넓은 의미로는 여러 원인에 의한 폐의 염증을 말하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감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흔한 미생물이지만 곰팡이가 원인이 되는 수도 있다.

폐렴은 폐에 급성 염증을 초래하여 기침, 가래를 일으키고, 산소 교환을 방해하여 호흡 곤란을 초래한다. 대개 발열을 동반하기도 하고 출거나 몸살 기운을 동반하는 것도 흔하다. 감기와 비슷하여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감기에서 보이는 콧물이나 인후통 등 코나 목 증상이 드물고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이

있으면 더욱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노인에서는 호흡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기운이 없거나 활동을 못 하고 드러눕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진단이 늦어지기도 한다. 폐렴이 의심되면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폐에 생긴 병변을 확인한다. 폐렴이 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스교환을 방해하여 저산소증이 초래되는데 이를 호흡부전이라고 하며, 산소투여가 필요하다. 이때는 입원을 하여 치료해야 하고 더욱 심해지면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을 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폐렴이 전신으로 진행하면 패혈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에는 혈압이 떨어지거나 신장, 심장, 간 등 여러 장기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폐렴이 의심되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폐렴은 원인균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호흡 부전, 장기 부전, 패혈증에 따른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폐렴은 폐의 발달이 충분하지 않은 소아나 폐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감염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평소 면역 기능이 어떠한지가 발병과 경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스테로이드나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도 위험이 커진다. 천식 등 만성 폐질환이나 만성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 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도 폐렴이 발생하면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침을 하기 어렵거나 가래를 배출하기 어려운 상태, 또는 음식물에 자주 사레가 들리는 뇌졸중 환자나 여러 신경과 환자들도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폐렴은 매우 다양한 미생물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균인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폐렴의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렴 백신은 두 가지가 개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당류 백신인 23가 백신(PPV23)과 단백결합백신인 13가 백신(PCV13) 두 가지 모두 사용 가능하다. 연령, 만성질환 여부와 과거 접종 경험에 따라 예방백신 투여 계획과 간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한 후 접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앞으로
도착한 감사의 편지를
전해드립니다.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 감사합니다

송중훈 정형외과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오랜 통증으로 지쳤던 정분순님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통해 다시 희망을 찾았다고 말한다.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하기까지 자상하게 살펴준 송중훈 교수가 가장 큰 희망을 건네주었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정리. 이가연 사진. 김지원



송중훈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 시간 앓아 온 어깨 통증 때문에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찾아 처음 교수님을 만났을 때가 바로 얼마 전인데 벌써 무사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제 모습이 아직 저도 낯설기만 합니다. 팔을 높게 드는 것도 힘들고, 물건을 옮기는 일도 어려워져서 맨 처음 병원을 찾은 게 아마도 3년 전쯤인 것 같네요. 어깨 통증이 그저 나이 탓, 피로 누적 탓인가 싶어서 동네의 작은 병원이나 한의원을 옮겨 다니며 차도가 없는 게 답답해질 즈음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왔습니다. MRI도 찍고 정밀검사도 받으면서 제 어깨에 생긴 질병이 '회전근개파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송중훈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제 어깨의 상태와 수술 방법, 앞으로의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의 자상한 배려 덕분에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며칠 간은 보조기도 익숙지 않고 두통도 생겨서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기도 했어요. 틈틈이 병실을 찾아 제 상태를 살펴주신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퇴원 후 주의해야 할 점들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주셔서 마음은 벌써 어깨가 아프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 있습니다. 입원하기 전에는 작은 텃밭에서 제 손으로 가꾼 채소들을 가족,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게 삶의 즐거움이었어요.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리려면 건강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알았으니, 꾸준히 운동도 하면서 건강도 가꾸려고 합니다. 송중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분순 드림



퇴원 후 주의해야 할 점들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주셔서 마음은 벌써 어깨가 아프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 있습니다.

정분순님께

잠은 편안히 주무셨나요? 오늘은 한걸 더 좋아 보이십니다. 처음 병원을 찾아주셨을 때에는 오랜 통증으로 다소 지친 상태셨어요. MRI를 통해 '회전근개파열'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회전근개파열이란 쉽게 말하면 어깨의 힘줄이 파열되어 통증을 유발하고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든 질환입니다. 정분순님의 경우 힘줄의 파열 정도가 큰 편이었습니다. 통증이 심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다만, 힘줄의 퇴행이 심각하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수술과 재활을 통해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다고 봤습니다. 회전근개파열 환자분들의 경우 파열의 크기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정분순님은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통해 수술을 받으셨어요. 관절경 구멍에 기구를 넣어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는 이 수술은 수술 후 평균 한 달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며 힘줄이 붙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힘줄이 완전히 붙는 데에는 기본 6주가 필요하며 이 기간에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은 최대한 피하셔야 해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데에는 3개월, 무거운 짐을 들거나 팔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하는 데에는 5~6개월을 잡으셔야 합니다. 정분순님은 수술 전 걱정하셨던 것에 반해 수술이 매우 잘 되셨어요. 환자 본인의 의지도 강하시고 가족분들의 응원과 사랑이 환자분께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저도 기쁩니다.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법도 잊지 말고 꼭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퇴원하시고 이 다음에 뵈는데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뵈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송중훈 드림



정분순님의 경우 힘줄의 파열 정도가 큰 편이었습니다. 통증이 심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다만, 힘줄의 퇴행이 심각하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이 알기 쉬운 건강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일상을 바꾸는 걷기운동 습관에 대하여

한승훈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재활의학과



비만인 경우, 무리한 걷기운동은 오히려 '독'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강을 지키며 체중 감량도 할 수 있는 걷기운동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단,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걸거나 현재 몸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해서 걷는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이어트를 위해 처음부터 무리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간

혹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 첫날부터 1~2시간씩 걷는 경우가 있는데, 갑작스러운 과도한 걷기운동

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주며 근골격계, 허리, 엉덩이, 무릎 또는 발목관절의 통증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어렵게 시작한 걷기운동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걷기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욕심을 내지 말고 10~20분 정도에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처음부터 빠른 걸음을 걷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한 뒤 점차 일상걸음보다 약간 빠르게 걷는 것이 좋다. 걷기운동이 익숙해지고 운동 후 관절의 통증이 없으면 시속 6km정도로 30~40분 이상, 일주일에 3회 이상 꾸준히 걷는 것이 다이어트에 효과있는 운동법이다. 숨이 찰 정도로 너무 빨리 걷게 되면 근육의 피로가 빨리 오기 때문에 걷기 속도를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Point.1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한 뒤 점차 빠르게 걷는 것이 좋다.

걷는 자세 바르게 유지해야 관절에 무리 없다

걷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다.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발목, 무릎, 엉덩이, 허리 등에 무리가 갈 수 있다. 걷기 전 10분 정도는 온몸의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걸을 때에는 척추를 곧게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며 걸어야 한다. 복부비만이 있는 경우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걷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허리 통증,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걷기운동 시 호흡은 천천히 들이마시고 뱉으며 시선은 15m 앞을 유지하며 걷는다. 양팔을 리듬감 있게 흔들면서 걷는 것은 상체, 체간의 움직임을 유발시켜 전신운동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세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쿠션이 충분하고 본인의 발에 사이즈가 잘 맞는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걸을 때에는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한 후 발의 앞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

Point.2

걷기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운동 효과를 높인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하루 30분~1시간 정도 걷기운동에 투자한다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원고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지난 1월 6일 진행한 건강강좌의 내용입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강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3+4월 건강강좌 소식은 46페이지 한양캘린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YANG NEWS

2016년 12월 ~ 2017년 2월

한양대학교의료원

신년 시무식 개최



본원은 지난 1월 2일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의 성공적인 신축과 운영을 목표로 '2017 신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김경현 의무부총장은 "한양대학교병원은 안심의료시스템과 응급진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 교직원이 합심해 주길 바란다"며 "한양대학교구리병원도 올해 완공 예정인 신관 신축을 차질 없이 개소해 미래의 진료환경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엄 개최



본원은 지난 1월 19일 의과대학 계단강의동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미 올해 1월부터 진료를 시작한 서울 동남권역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권역 내 응급환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신진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주제로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 이어 진행된 개소식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경과보고, 테

이프카팅, 센터 투어 등이 진행됐다.

이광현 병원장은 "본원 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내 중증 및 응급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이와 함께 뇌졸중, 심근경색, 암 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한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는 등 중증 응급질환 치료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로 앞으로 권역 내 중증 응급환자들에게 최적의 응급의료 제공은 물론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된 한양대학교병원은 확장 리모델링을 통해 1년여간의 철저한 준비기간을 통해 응급환자 진료구역, 소아응급환자 진료구역,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소생실, 격리병상, 응급전용 중환자실, 응급전용 입원실 등으로 구성된 지상 5층의 건물을 증축했다.

인력 면에서도 기존 응급전문 의료진 외에 1급 응급구조사, 응급코디네이터, 응급의료정보관리사 등이 가세하여 응급의학전문의를 도와 24시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 환우 위한 바자회 개최



본원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어려운 환우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12월 12일~17일 본관1층 로비에서 '브랜딩 바자회'를 개최했다. 일주일간 진행된 바자회의 수익금 중 일부를 본원에 후원하였고, 이 후원금은 입원중인 저소득층 환우들의 진료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아동건강 원스톱 의료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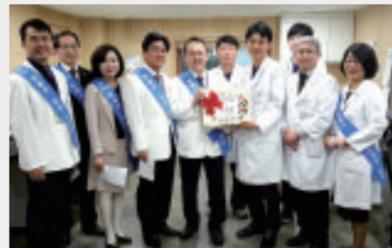
본원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성동구 내 저소득층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2일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했다. 본원과 성동구는 지난 2013년부터 '취약계층 아동건강 원스톱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헌혈증 전달식 진행



본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동관8층 제2회의실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사랑의 헌혈증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원 이광현 병원장, 조영원 운영지원국장, 윤영선 간호국장,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김중수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안전 라운딩 실시



본원은 입원 환자 및 내원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 라운딩(Safety Rounding)'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진행된 '안전 라운딩'에는 이광현 병원장, 김근호 부원장, 조영원 운영지원국장, 김석현 QI실장, 윤영선 간호국장이 참석했다.

간병 부담 줄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시



본원은 보호자가 없어도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생활을 돕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본원은 본관 20층을 리모델링하고, 모든 공간을 환자 중심의 최적화된 통합의료서비스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개소식'을 개최했다. 총 52병상 규모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은 중앙모니터링시스템, 서브스테이션, 환자 감시장치, 환자이동 보조기구, 전동침대, 낙상감시센서, 침대용 목욕실 등의 시설과 시스템으로 환자안전과 편의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간호사(44명)와 간호조무사(8명), 간병도우미(4명) 등 모두 56명의 인력이 24시간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규 간호사 첫돌잔치 행사 개최



본원은 입사 후 만 1년을 넘긴 신규 간호사들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신관6층 세미나실에서 '2016 신규 간호사 첫돌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입사 후 만 1년을 넘긴 신규 간호사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고,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가족과 동료, 친구 등의 깜짝 축하 영상메시지, 케익 커팅, 축하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환아들의 건강한 수면 위한 '사랑의 이불' 전달식



본원은 ㈜이브자리로부터 '사랑의 이불'을 기부받아 환아들을 위한 병실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동관 8층 제1회의실에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엔 전달된 '사랑의 이불'은 환자들을 위해 친환경 소재의 알러지제거가 가능한 맞춤 제작 제품으로 소아 병동 전체와 성인 1인 병실 등에 사용될 5천만 원 상당의 침구 세트다.

병원학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장 받아



본원 병원학교는 건강장애 학생의 건강증진 및 교육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본원 병원학교는 소아암 등으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료와 학업을 병행해 정상적인 학교 복귀를 도우며, 현직 교사와 대학생 교사들을 통해 교과수업을 유지하고, 웃음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여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안정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행복한 봉사 콘서트 개최



본원은 지난해 12월 20일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행복한 봉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저소득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조기 검사비를 지원하고 적절한 재활 치료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콘서트에는 박승화(유리상자), 위일청(서울패밀리), 윤준(트로트아이돌) 등 초대가수와 대견합기도, 구리시립합창단 등 지역 여러 단체의 재능기부 참여로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제14회 QI경진대회 개최



본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본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제14회 QI경진대회'를 개최했다. QI경진대회는 한 해 동안 각 부서에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을 발표 및 평가하는 행사이며, 행사에는 김재민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됐다.

구리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구리시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1월 6일에는 재활의학과 한승훈 교수

가 '겨울철 운동방법과 스트레칭', 2월 3일에는 정형외과 송중훈 교수가 '내 어깨 왜 아픈가요?'를 주제로 강의했다.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개소식



본원은 지난 1월 18일 본관 4층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로 선정된 본원은 국고지원비와 병원 자체투자비용 등 모두 10억 원을 들여 기존 7병상에서 5병상을 늘린 총 12병상으로 확장했으며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고위험 산모에 대비하여 산부인과 등 타과의 체계적인 협진 및 지역의 분만 병원과의 협력강화도 구축했다.

구리시간호사회 창립 총회 개최



본원은 지난 1월 19일 본관 12층 강당에서 '구리시간호사회 창립 총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민 병원장, 백경현 구리시장, 김인자 경기도 간호사회장, 이병길 구리보건소장 등 구리간호사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교보생명보험과 업무제휴 협약식



본원은 지난 2월 14일 12층 강당에서 교보생명보험과 다윈(DA-Win)서비스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보생명과 맺은 다윈(DA-Win)서비스는 교보생명의 CS전문가 그룹이 병원을 방문하여 맞춤형 CS노하우(CS교육, CS컨설팅 등)를 제공하는 일종의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2017년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2월 12일 한양종합기술원(HIT)에서 '관절염의 실용적인 진단과 처방:근골격계 통증의 주요 원인과 치료'를 주제로 '2017년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배상철 병원장은 "류마티스질환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은 전신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환자들은 특정 관절이나 신체 부위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의 증상에 착안해 신체 부위별로 발생하는 통증에 대한 접근법과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질환에 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저서 출간



오재원 교수, 「필하모니아의 사계」 개정판 출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의 저서 「필하모니아의 사계」 개정판이 출시됐다. 바이올린을 든 의사가 들려주는 감미롭고 섬세한 작곡가 69인의 125가지의 주옥 같은 클래식 음악 이야기가 담긴 이 저서는 클래식은 어렵다는 편견의 문턱을 낮춰 일반인들이 쉽게 클래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인물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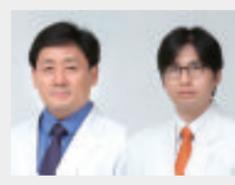
김재민 병원장, 구리시장 감사패 받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재민 병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구리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재민 병원장은 구리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며 구리시에서 추진한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시민 건강체험 한마당 참여, 법정 감염병 관리사업 등 보건 시책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최규선 교수,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우수학술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최규선 교수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2016년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한국 뇌동맥류 파열환자의 클립 결찰술과 혈관내 색전술의 치료 효과 비교: 2011~2014년간의 심평원 자료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우수학술상을 수상했다.

김정태 교수와 김연환 교수,

중국-시교쿠성형외과학회 초청 강연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김정태 교수와 김연환 교수가 지난 2월 5일 일본 오카야마시에서 열린 '제73회 중국-시교쿠 성형외과 학술대회'에 초청되어 미세 재건수술을 주제로 특별 강연했다. 김정태 교수는 '미세재건수술의 진화'를 주제로 강의했고, 김연환 교수는 '두개의 천공지피판을 이용한 하지 재건'을 주제로 강의했다.



최중섭 교수, 태극서 복강경 수술 시연 개정판 출간
한양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최중섭 교수가 지난 2월 8-9일 태극 라미타비디병원에서 열린 FRESH 국제워크숍에서 65세 고위험 자궁내막암 환자에 대한 '복강경 주위 대동맥 임파절 절제술'을 시연해 150여 명의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박성욱 물류팀장, 경기도지사 표창장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성욱 물류팀장이 지난해 12월 30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중무식에서 감염병관리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했다. 박성욱 팀장은 경기도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인을 소개합니다.
2016년 12월 ~ 2017년 1월

연합뉴스TV 김이석 교수
한파에 아찔한 빙판길... 노인 낙상 주의

MBC7분좋은날 최찬범 교수
이유 없는 증상은 없다! <손발 저림의 모든 것>

SBS모닝와이드 김희진 교수
알루미늄 호일을 쓰면 치매에 걸린다?!

채널A 닥터지바고 조희운 교수
황반변성

On-Air

한양대학교병원 김정태 성형외과 교수 KBS/ 12월 2일/ [KBS1TV]소버자 리포트과장 성형광고의 그늘 **하태경 외과 교수** KBS/ 12월 3일/ [러시아 ASTV]한양대학교병원 나눔의료사업-비만수술 **임한웅 안과 교수** KBS/ 12월 3일/ [러시아ASTV]한양대학교병원 나눔의료사업-사시수술 **윤병철 소화기내과 교수** YTN/ 12월 16일/ [YTN 사이언스]입 냄새, 원인질환 따로 있다? 입냄새로 보는 건강 **신진호 심장내과 교수** KBS/ 12월 18일/ [KBS1TV 실버건강소101세이프프로포즈]심근경색, 채널A/ 1월 2일/ [채널A닥터지바고]줄여야 산다. 혈관 속 지방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KBS Radio/ 12월 21일/ [KBS1R 라디오주치의]간경화와 음주, KBS/ 1월 4일/ [KBS2TV생생정보]술에 지친 간의 경고, 지방간 **김희진 신경과 교수** SBS/ 12월 23일/ [SBS모닝와이드]알루미늄 호일을 쓰면 치매에 걸린다?!, SBS/ 1월 10일/ [SBS모닝와이드]치매예방주사의 진실 **이영호 소아청소년과 교수** MBN/ 12월 27일/ [MBN뉴스]무한 가능성 제대할...관리는 미흡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연합뉴스TV/ 12월 28일/ [연합뉴스TV]독감 이어 노로바이러스가 자...80%가 학교 감염, TV조선/ 12월 31일/ [TV조선다큐스페셜]위장질환 **박동원 호흡기내과 교수** 채널A/ 12월 30일/ [채널A김현욱의굿모닝미세먼지] **박진규 심장내과 교수** 채널A/ 1월 2일/ [채널A닥터지바고]줄여야 산다. 혈관 속 지방 **노영석 피부과 교수** MBC/ 1월 12일/ [MBC닥터

고당신도 탈모인?, SBS/ 1월 16일/ [SBS모닝와이드]겨울철 손톱 건강을 잡아라 **김상현 호흡기내과 교수** 연합뉴스TV/ 1월 13일/ [연합뉴스TV]겨울철 고령 천식환자 응급실행↑...독감·찬공기로 악화 **임영호 심장내과 교수** SBS/ 1월 22일/ [SBS인생은아름다워]막하면 죽는다! 혈관질환 **김이석 정형외과 교수** 연합뉴스TV/ 1월 24일/ [연합뉴스TV]한파에 아찔한 빙판길...노인 낙상 주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KBS1R[라디오주치의]/ 12월 2~4일, 9~11일, 16~18일, 23~25일, 30~31일, 1월 1일, 1월 6~8일, 1월 13~15일, 20~22일, 27~29일/ 뮤직테라피 **박용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MBN/ 12월 18일/ 겨울 우울증, 봄·여름에 태어나면...우울증 더 심하다? **지용배 이비인후과 교수** KBS/ 1월 11일/ [KBS생생정보]W보고서-민간요법의 진실 **박환철 심장내과 교수** 채널A/ 1월 29일/ [채널A 헬로굿맨] 심근경색,화병 **조희운 안과 교수** 채널A/ 1월 30일/ [채널A 닥터지바고] 황반변성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박시복 관절재활의학과 교수** 연합뉴스TV/ 12월 12일/ [연합뉴스TV]추위 막을 보온 아이템...잘 알고 써야 건강 챙겨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MBC/ 12월 13일/ [MBC7분좋은날]아유 없는 증상은 없다! - <손발 저림의 모든 것> **한양대학교의료원 의과대학 기초교실 공구 교수** MBC / 1월 9일/ [MBC뉴스]달걀 대란 언제까지

한양대학교병원 신진호 심장내과 교수 국민일보/ 12월 1일/ 가정혈압 중요...환자 교육 프로그램 절실 **배현주 감염내과 교수** 조선일보/ 12월 5일/ 항생제 자주 쓰면 유익한 세균도 파괴...건강에 악영향 **김경수 심장내과 교수** 조선일보/ 12월 7일/ 심장병, 약·시술보다 생활습관 중요...의사가 10분 이상 교육 **김용주 소아청소년과 교수** 조선일보/ 12월 7일/ 급성 설사 환자 10명 중 4명 9세 미만... 손씻기로 예방을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서울신문/ 12월 19일/ 술 마시기 전 공복 채워야 내장 건강 지켜요 **안동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에코힐링 겨울호/ 12월 20일/ 숲, ADHD 아이와 가족에게 사랑을 선물하다, 한국일보/ 12월 22일/ 동가남 폭력 시달린 여성에 보호차·직업까지 알선 - 행동발달증진센터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조선일보/ 12월 28일/ 매일 소주 3잔 마시면 남성호르몬 12% 저하 **김희진 신경과 교수** 건강다이제스트/ 12월 29일/ 치매 예방주사 효과 있을까? **김상현 호흡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1월 4일/ 두드러기·호흡 곤란... 감기약 알레르기 아세요? **임한웅 안과 교수** 서울신문/ 1월 10일/ [임한웅의 의공학 이야기] 의학이 공학을 만났을 때 **김이석 정형외과**

교수 조선일보/ 1월 11일/ 경미하게 금 간 빼, 방치했다간 완전 골절·사망까지 **호정규 산부인과 교수** 중앙일보/ 1월 16일/ [건강한 당신] 난임 40% 비실비실 정자탕...수정일 열달 전부터 몸 만들라 **이영호 소아청소년과 교수** 국민일보/ 1월 18일/ 한양대병원 병원학교, 서울시교육청 감사장 받아 **백광흠 신경외과 교수** 조선일보/ 1월 25일/ 질병에 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동수 소화기내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12월 1일/ 대한장연구학회, 8개 병원에 염증성 장질환자 배려 화장실 운영 **김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세계일보/ 12월 19일/ "노력해도 안 되는 나라" 무기력 호소하는 직장인들 **한승훈 재활의학과 교수** 조선일보/ 1월 4일/ 겨울철 운동·스트레칭 방법 알려드려요, 국민일보/ 1월 10일/ 한양대구리병원, 겨울철 운동방법 건강강좌 열어 **박예소 정형외과 교수** 국민일보/ 1월 16일/ 대한골다골증학회,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료지침' 개발, 한국일보/ 1월 23일/ 골다공증 환자, 엉덩이 관절 골절되면 2년 이내 사망률 10배 높아져 **김창렬 소아청소년과 교수** 국민일보/ 1월 20일/ 한양대구리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운영



Event

Quiz
2017년 1월 18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이 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구리, 남양주, 서울 동북부 권역 내 유일한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이 센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소식지와 블로그의 [한양 토크]를 참고하여 이름, 휴대폰 번호와 함께 정답을 보내주세요. 4월 14일까지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 phnyang@gmail.com

1+2월호 이벤트 당첨안내
많은 분들이 지난해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당첨된 10분께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렸습니다.

- 당첨자
- 박** com***@naver.com
 - 최** jjee***@naver.com
 - 최** cc***@hanmail.net
 - 김** ymi***@naver.com
 - 정** joyr***@naver.com
 - 강** marsi***@empas.com
 - 주** d-mapl***@hanmail.net
 - 전** kasol0***@unies.com
 - 정** lovehear***@naver.com
 - 박** pj0***@daum.net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Together & Tomorrow 모금 캠페인이란?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힘찬 미래를 향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매월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급여공제,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
(CMS)를 통해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모금 캠페인입니다.

사용 용도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 건립기금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 신축기금
-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연구중심병원 발전기금

※ 발전기금은 법에 의거하여 시설, 연구, 교육, 학술 활동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동문, 환자 및 보호자, 학생 및 학부모, 재단 가족 및 교직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시는 분들께는 세금공제와 함께 기부금에 따른 예우 혜택이 있습니다.

약정 방법

- 온라인 약정하기 :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www.hyumc.com) ⇨ 발전기금 icon 클릭 ⇨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약정서 다운로드 ⇨ 약정서 작성(서명) ⇨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 송부(hmcfund@hyumc.com)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기부자 명예의 전당

이 명예로운 자리에 귀하의 소중한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신동호

(1천만 원 이상)



정효경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2016년 12월 ~ 2017년 1월 기부자 명단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1천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김덕근	서울정형외과	고성호	신경과	김현준	외과	서정원	영상의학과	이상훈	이상훈아비인후과의원	정재호	아비인후과
김현아	유한킴벌리	고재성	고아비인후과의원	김현욱	의료정보팀	설인준	소아청소년과	이선이	간호국	정재홍	정형외과
정자현	정자현내과의원	곽인영	곽아비인후과의원	김현조	킴스의원	신정철	성남이안과	이슬아	본관11층	정진혁	아비인후과
제명신	유한킴벌리	구선완	인사총무팀	김희숙	약제팀	성민철	안과	이승욱	비뇨기과	정진환	신경외과
		국은영	간호국	남승혁	홍부외과	성외순	부속실	이승환	아비인후과	정희숙	보험심사팀
		김경화	본관11층	남영자	마취후회복관리실	성정순	내과계중환자실	이양섭	원무팀	조기섭	진단검사의학과
		김금옥	중앙공급실	남정현	정신건강의학과	손정화	우리들정형외과의원	이영석	정형외과	조상윤	마취통증의학과
5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나경선	나경선내과의원	김남기	재무팀	노선균	홍부외과	손주현	소화기내과	이유경	영상의학과	조아라	영양팀
박재일	제일내과의원	김도윤	정형외과	노정환	병리과	손한숙	약제팀	이은희	본관11층	조영아	소통의원
백광흠	한양대학교병원	김동섭	KD맑은안과	류제일	신경외과	송중훈	정형외과	이정일	정형외과	조영완	운영지원국
임병성	새생명일반내과의원	김문성	김문성아비인후과의원	명동안과의원		신대현	상쾌한아비인후과	이정환	산부인과	조영진	내과중환자실
		김미혜	본관11층	문지용	호흡기내과	신동한	원무팀	이제인	약제팀	조재민	조은아비인후과의원
		김민규	외과	문진화	소아청소년과	신순교	응급의료센터	이종	교육연구팀	지용배	아비인후과
오상우		김범석	아침아비인후과소아과	문홍상	비뇨기과	신용운	안과	이종숙	감염관리팀	채영림	재무팀
이동규	이동규내과	김봉유	원무팀	박기철	정형외과	신우중	마취통증의학과	이종희	본관5층	채우석	채우석아비인후과
최보울	한양대학교의과대학	김선기	영상의학과	박동우	영상의학과	신인철	약리학교실	이주학	신장내과	최도전	본관8층
태암내과의원		김승현	신경과	박미라	외과계중환자실	신정훈	심장내과	이주한	영상의학과	최민영	외과
이영준	태양상사	김양욱	신생아실	박성욱	물류팀	신창식	신창식 아비인후과	이진규	정형외과	최성환	최성환 아비인후과
한주현	플라스왕소아청소년과의원	김영보	홍보팀	박시복	재활의학과	심경아	본관11층	이창범	내분비내과	최승석	성형외과
홍동균	본아비인후과의원	김영호	정형외과	박예수	정형외과	심재항	통증의학과	이철범	홍부외과	최정혜	혈액종양내과
		김옥중	고객지원팀	박용미	본관9층	안치원	응급의학과	이혜순	류마티스내과	최준석	타이비인후과의원
		김용수	영상의학과	박용천	정신건강의학과	여광호	진단검사의학과	이화준	Q팀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김용호	정신건강의학과과의원	박원희	치과	염종훈	마취통증의학과	임동수	임신경정신과의원	최충혁	정형외과
김경현	한양대학교의료원	김우길	시설팀(전기)	박일규	진단검사의학과	오미경	마취통증의학과	임상혁	영상의학과	최혁중	응급의학과
김대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운용	기획팀	박주원	의무기록팀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임완예	원무실	최호진	신경과
김순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윤영	치과	박지호	간호국	원영웅	혈액종양내과	장성호	재활의학과	최홍용	비뇨기과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이석	정형외과	박찬혁	소화기내과	유교상	소화기내과	장재선	간호국	허루미	수술실
오영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자혜	소아청소년과	박창구	시설팀	유미경	임상연구지원팀	장지희	건강관리팀	한동수	소화기내과
윤영선	한양대학교병원	김정수	피부과	박태선	호흡기내과	유정아	영상의학과	전석분	본관7층	한명훈	신경외과
조희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주형	본아비인후과의원	박혜경	코코아비인후과	유창성	진단검사의학과	전선희	회복실	한상용	신장내과
		김준현	애스앤미안과의원	박환철	심장내과	윤명희	재활의학과	전용철	소화기내과	한승훈	재활의학과
		김지영	핵의학과	박원경	외과	윤어필	물류팀	전우재	마취통증의학과	함수미	응급의료센터
		김지은	감염내과	박희정	진단검사의학과	은창수	소화기내과	정경희	본관6층	홍성숙	내시경실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김창렬	소아청소년과	반은주	제3중환자실	이경섭	이경섭정신과의원	정규성	정형외과	홍의호	핵의학과
강민호	안과	김창선	응급의학과	방소영	류마티스내과	이경식	감염관리팀	정미선	원무팀	황규태	정형외과
강일규	강일규아비인후과	김충현	신경외과	백근만	운영지원국	이경희	본관10층	정수경	간호국	황성우	경영지원실
강창남	정형외과	김태승	정형외과	변순현	의무기록팀	이광현	정형외과	정우성	새움병원	황의순	진료협력팀
고란주	간호국	김태형	호흡기내과	서우영	정형외과	이규용	신경과	정재윤	소화기내과	황인자	간호국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10만 원 미만		김영희 재무팀	김영연 심장센터	나소정 수술실	박은영 내시경실	신명희 치과			
강다운 본관9층	김명환 영양팀	김영일 홍보팀	나운숙 2층내과	박은영 인공신장실	신미숙 진단검사의학과				
강문주 본관11층	김미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영자 진단검사의학과	나인철 재활의학과	박은형 진료협력팀	신수지 수술실				
강민아 진단검사의학과	김미라 성형외과	김영진 신경외과	나현영 제3중환자실	박응범 비상계획계	신재철 의무기록팀				
강석범 핵의학과	김미라 영상의학과	김영훈 물류팀	남기준 원무팀	박점현 본관11층	신정미 영양팀				
강상찬 외과	김미성 간호국	김육원 영상의학과	남순영 본관5층	박정우 신경외과	신정은 인공신장실				
강성훈 진단검사의학과	김미성 마취후회복관리실	김은미 신생아중환자실	노광규 인사총무팀	박주은 분만실	신철우 진단검사의학과				
강신창 핵의학과	김미성 인공신장실	김은실 소아청소년과	노옥경 제3중환자실	박지경 영양팀	신현주 인공신장실				
강영의 본관6층	김미화 보험심사팀	김은주 응급의료센터	노옥석 동관7층	박지애 Q팀	신혜민 수술실				
강윤성 의무기록팀	김미희 동관7층	김은지 본관10층	노창완 영상의학과	박지혜 응급의료센터	신희숙 응급의학과				
강은미 본관10층	김민선 영양팀	김은희 수술실	류중백 시설팀(시설)	박진욱 보험심사팀	심규진 본관7층				
강지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민아 본관10층	김인호 약제팀	모지은 소화기내과	박진희 인공신장실	심규형 영상의학과				
강지원 기획팀	김민정 이비인후과	김자윤 해안정신건강의학과	문미영 의무기록팀	박춘아 수술실	심오라 보험심사팀				
강혜영 영상의학과	김민정 인공신장실	김재희 영상의학과	문미영 이식센터	박현정 피부과	안대웅 교육연구부				
강혜숙 영양팀	김민정 중앙공급실	김정달 진단검사의학과	문상희 내과중환자실	박현혜 본관8층	안명현 병리과				
고아라 산부인과	김민희 2층내과	김정민 본관10층	문영민 영상의학과	박현화 마취후회복관리실	안미경 영양팀				
고회경 2층내과	김민희 국제행정지원팀	김정숙 객차지원팀	문재봉 시설팀(시설)	박혜정 건강검진센터	안삼순 2층내과				
공경숙 신생아중환자실	김백수 동관7층	김정안 본관7층	문정희 본관9층	방민주 제3중환자실	안석태 영상의학과				
공지현 심장센터	김병숙 원무팀	김정언 외과	문한솔 외과	방성주 대외홍보팀	안선미 내과중환자실				
곽동원 영상의학과	김보미 신경외과	김정희 영양팀	문화애 본관6층	방지훈 신경외과	안신영 본관9층				
권난희 영양팀	김상미 본관10층	김주희 응급의료센터	민진 신생아중환자실	배운석 수술실	안유정 내과중환자실				
권미화 호흡기내과	김상훈 약제팀	김준식 진단검사의학과	민현숙 약제팀	배은희 보험심사팀	안은중 의료정보팀				
권연희 영양팀	김상희 본관11층	김중식 수술실	박경림 보험심사팀	백필선 외과	안은진 2층내과				
권오근 인사총무팀	김석현 정신건강의학과	김창금 영양팀	박경미 비뇨기과	백형정 약제팀	안이슬 본관10층				
권용덕 마취통증의학과	김선영 객차지원팀	김철한 재무팀	박경숙 간호국	백혜연 수술실	안정미 수술실				
권유진 응급의료센터	김선영 영상의학과	김초름 본관5층	박경희 중앙공급실	변다솜 본관10층	안정은 본관11층				
권은진 이비인후과	김선주 인공신장실	김초롱 본관6층	박근배 보험심사팀	서명진 주사실	안정현 이비인후과				
권혁천 객차지원팀	김성애 본관17층	김춘애 영양팀	박명경 외과	서병갑 영상의학과	안창선 물류팀				
권현숙 본관5층	김상철 병리과	김태근 병리과	박명호 환자이송반	서소연 소아청소년과	안혜옥 본관20층				
권혜영 인공신장실	김성훈 영상의학과	김태호 재활의학과	박미숙 영양팀	서소연 응급의료센터	양길녀 본관7층				
김경수 본관6층	김세정 본관11층	김택순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박미순 원무팀	서승희 내과중환자실	양명화 간호국				
김경숙 항암조제실	김소란 본관10층	김하연 응급의료센터	박미옥 교육연구팀	서승희 본관9층	양미영 영양팀				
김경실 본관5층	김소연 인공신장실	김현일 외과	박상혁 영양팀	서영남 본관8층	양수용 세탁실				
김경우 진단검사의학과	김수연 보험심사팀	김현주 본관6층	박선아 진단검사의학과	서영은 본관5층	양은주 낮병동				
김광영 객차지원팀	김숙미 영상의학과	김현진 재활의학과	박신영 내과중환자실	서현주 진료협력팀	양현 간호국				
김규식 비뇨기과	김순식 노동조합	김현창 물류팀	박선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설명길 의료정보팀	양효선 약제팀				
김금례 인공신장실	김승희 인공신장실	김현희 2층내과	박성찬 진단검사의학과	성경희 본관7층	엄기숙 영양팀				
김기라 인사총무팀	김이름 본관5층	김형근 진단검사의학과	박소은 영양팀	성명순 사회복지팀	엄혜정 수술실				
김기석 내시경실	김애경 내과중환자실	김형석 약제팀	박수미 내과중환자실	성혜윤 본관8층	여미진 본관10층				
김나영 본관18층	김애경 본관20층	김형주 약제팀	박수정 수술실	손영성 본관9층	여은주 본관6층				
김다솜 약제팀	김양선 인공신장실	김혜림 감염관리팀	박순구 안과	손화선 대외홍보팀	오금복 정형외과				
김대건 영상의학과	김연정 재무팀	김혜원 간호국	박연희 수술실	송명선 본관10층	오기향 비뇨기과				
김도와 내시경실	김연주 병동서무	김황룡 진료부	박예진 본관8층	송은경 진단검사의학과	오미혜 정신건강의학과				
김동관 진단검사의학과	김영미 이비인후과	김효준 물류팀	박용범 기획팀	송주영 2층내과	오연이 영양팀				
김란 본관5층	김영선 본관5층	김휘원 본관5층	박유정 감염관리팀	송현수 시설팀	오영숙 객차지원팀				
김령 영양팀	김영신 치과	김희나 주사실	박은수 본관10층	송훈남 재활의학과	오유선 본관9층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오재훈 마취통증의학과	음희재 내시경실	이윤진 응급의료센터	전경신 본관8층	최민희 마취후회복관리실	현순희 소화기내과				
오정남 영양팀	이강연 비상계획계	이은경 인사총무팀	전미선 간호국	최선미 인공신장실	홍대영 인사총무팀				
오정숙 재활의학과	이경은 영상의학과	이은명 약제팀	전형수 대외홍보팀	최선희 진단검사의학과	홍민영 비뇨기과				
오지현 주사실	이경철 기획팀	이은애 본관11층	전효선 수술실	최성은 교육연구팀	홍숙의 병동서무				
오진영 2층내과	이경하 정신건강의학과	이은주 보험심사팀	정경은 본관5층	최세연 원무팀	홍은미 내과중환자실				
오홍석	이경희 인공신장실	이은형 본관6층	정기영 영상의학과	최소담 영상의학과	홍은자 내시경실				
오화경 수술실	이관석 원무팀	이은희 인공신장실	정대천 원무팀	최순애 인공신장실	황미향 영상의학과				
오희순 응급의료센터	이규택 신경과	이정식 보험심사팀	정선주 내과중환자실	최승희 본관10층	황성환 교육연구부				
옥상열 홍보팀	이금란 인공신장실	이정애 병리과	정선희 인공신장실	최신자 진단검사의학과	황성희 정형외과				
우순희 수술실	이나리 본관10층	이정은 시설팀	정수정 본관5층	최영선 인공신장실	황영순 본관5층				
우정미 객차지원팀	이나영 수술실	이정인 당뇨센터	정유정 본관17층	최윤희 신생아중환자실	황정선 마취후회복관리실				
원혜정 부속실	이두리 제3중환자실	이정화 소아청소년과	정은영 수술실	최은영 본관8층	황준호 의료정보팀				
원홍석 인사총무팀	이두중 핵의학과	이정화 신경과	정일웅 의료정보팀	최재범 원무팀	황혜연 본관10층				
위영현 약제팀	이명숙 병리과	이정화 이비인후과	정임중 응급의료센터	최정연 대외홍보팀	황희수 영상의학과				
유고은 본관10층	이명주 약제팀	이정희 본관8층	정재순 마취통증의학과	최정훈 2층내과					
유미화 물류팀	이미경 보험심사팀	이종열 치과	정정미 본관10층	최종석 영상의학과					
유병호 내과중환자실	이미경 영양팀	이주영 인사총무팀	정지현 응급의료센터	최정은 보험심사팀					
유선길 건강검진센터	이미란 본관6층	이주현 본관6층	정현정 진단검사의학과	최진실 본관5층					
유선정 이비인후과	이미자 본관11층	이주현 중앙공급실	정혜영 내과중환자실	최창순 동관7층					
유숙 병리과	이미정 본관10층	이지현 심장센터	정훈 의료정보팀	최현구 본관8층					
유영미 내과중환자실	이미정 중앙공급실	이진주 응급의료센터	조경숙 인공신장실	최현주 진단검사의학과					
유은희 제3중환자실	이민지 본관5층	이창훈 정형외과	조광희 본관9층	최혜용 시설팀					
유정안 중앙공급실	이민진 건강관리팀	이하랑 마취후회복관리실	조구성 영상의학과	최희영 Q팀					
유정자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상미 제3중환자실	이현아 본관7층	조규선 영상의학과	표은주 진단검사의학과					
유주량 본관5층	이상찬 차량계	이현주 본관7층	조문형 원무팀	하경애 마취후회복관리실					
유지학 인사총무팀	이새롬 본관11층	이현주 원목실	조은영 영상의학과	하동근 비뇨기과					
유현영 물류팀	이서윤 본관9층	이현중 영상의학과	조인옥 진단검사의학과	하은영 약제팀					
유현주 건강검진센터	이선영 본관6층	이혜정 수술실	조현교 진단검사의학과	하지윤 원무팀					
유현주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선화 본관9층	이호남 진료협력팀	조현일 시설팀	한미경 신생아중환자실					
윤경주 응급의료센터	이선희 원무팀	이호문 영상의학과	조형필 재활의학과	한상운 원무팀					
윤규리 본관10층	이성모 물류팀	이호용 영상의학과	조환영 중앙공급실	한수진 본관10층					
윤미영 본관8층	이성미 신경외과	임경순 신경외과	주찬미 본관7층	한승희 수술실					
윤선미 영양팀	이소연 응급의료센터	임다현 본관10층	지미경 보험심사팀	한아영 수술실					
윤선애 본관6층	이수연 시설팀	임선경 본관11층	지은아 산부인과	한정연 성형외과					
윤선희 영양팀	이수진 수술실	임연희 진단검사의학과	지혜정 의료정보팀	한주화 심장센터					
윤아름 본관10층	이숙 객차지원팀	임은실 응급의료센터	진수희 내시경실	한현남 영양팀					
윤원구 윤정형외과	이숙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임은자 이비인후과	진춘희 영양팀	한현수 의료정보팀					
윤은정 신생아중환자실	이순자 본관5층	임인자 수술실	천경희 의료정보팀	한현정 보험심사팀					
윤인숙 본관20층	이승호 영상의학과	임인현 병동서무	천다혜 본관9층	함명자 보험심사팀					
윤정아 외과	이연우 신생아중환자실	임정연 시설팀	천영복 물류팀	함연순 외과					
윤정희 약제팀	이연주 정형외과	임주아 정형외과	천은미 소아청소년과	허성미 본관8층					
윤지선 본관6층	이영미 신생아중환자실	임지영 영양팀	천은선 외과	허정현 심장센터					
윤향순 진단검사의학과	이영주 2층내과	임화영 비뇨기과	최규호 마취통증의학과	허지선 본관7층					
윤현숙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예린 내과중환자실	장선정 신생아중환자실	최다울 신생아실	허지영 병동서무					
윤현순 객차지원팀	이유리 제3중환자실	장윤주 약제팀	최문정 본관5층	허태영 진단검사의학과					
윤희정 인공신장실	이유미 심장센터	장정아 육아지도실	최미옥 치과	허효숙 소화기내과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 순입니다.

Hanyang Calendar

3 March

03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인병의 진단과 치료
이비인후과 지용배 교수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24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위드 앙상블 - 정애화, 플루트 앙상블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03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사랑의 음악회
합창 - 에다미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25 Sat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루게릭병의 사회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심리 상담
성명순 사회복지사
오전 9시 30분
본관 3층 강당

10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피아노 연주 - 전재홍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31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합창 - 이종열/치과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17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합창 - 에벤에셀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4 April

03 Mon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내밀음악회 -
색소폰, 바이올린, 플루트 연주
오후 7시
본관 1층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15 Sat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합창 - 예은 중창단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05 Wed 

**한양대학교병원
성동구민을 위한 의료봉사**
오후 2시~4시 30분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1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안명진(바이올린, 비엔나 국립대학)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07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건강한 향문, 상쾌한 하루
외과 윤정아 교수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22 Sat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루게릭병의 영양관리1
백희준 영양사
오전 9시 30분
본관 3층 강당

07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위드 앙상블 - 정애화, 플루트 앙상블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28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합주 - 아람패밀리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14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피아노 연주 - 전재홍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02 - 2290 - 8114 ■ 진료의뢰센터 : 02 - 2290 - 9717 <http://m.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최호순	수, 금, 토(2주)	월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윤병철	월, 목	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이오영	월, 수, 토(3주)	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월~목, 토(1주)	수, 금	간질환
	이항락	금, 토(4주)	월,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강녕	화	목, 금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지영	월, 화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이혜영	수, 목	월, 목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김은진	금, 토	화, 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김경수	화, 목, 토(2주)	화, 금	허혈성심장질환, 심혈관중재술, 심장출기세포치로, 협심증, 고혈압
	신진호	월, 수, 금, 토(4주)	수	심부전, 심혈관중재시술
	임영효	수, 금	월, 수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심부전, 말초동맥질환, 일반심장질환
	박진규	월, 화, 목, 토(3주)	목	부정맥, 실신, 급사, 심장전기생리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 심박동기
	장기설	토(1주)		일반 심장내과질환
신장내과 2290-8300	김근호	월, 수(1주), 금, 토(3,4주)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이창화	화, 수, 금, 토(1,2주)	월, 목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박준성	월, 목, 토(3주)	화, 수, 금	일반 신장내과질환
내분비내과 내과 2290-8300	안유현	월~목, 토(2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최웅환	월, 화, 수, 금, 토(1주)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김동선	월, 수, 목	월, 화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박정환	화, 토(3주)	수, 목, 금	일반 내분비내과질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윤호주	월, 수, 토(4주)	수, 목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손장원	월, 화, 목, 토(2주)		폐결핵, 폐암,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김상현	화, 금, 토(1주)	월, 화	폐결핵, 폐렴, 폐암
	박동원	수, 토(3주)	월, 화, 목	천식, 알레르기, 면역성폐질환
중환자실	구건우	목	수, 금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구건우	월~금	월, 화, 목	중환자실전담전문의(08:30~17:30)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이영열	월, 수	화, 목	만성백혈병, 골수증식질환, 림프종, 골수증, 기타혈액질환
	박병배	화, 목	월, 금	림프종, 다발성 골수증,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노생식기계종양, 육종
	엄지은	금	월, 화, 수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감염내과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설인준	화, 목, 토(1주)	월, 수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간질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지대클리닉▲	오성희	목, 금	월, 화	소아감염질환
	김남수	월, 수, 금(구리), 토(4주)	목	소아심장질환
	이영호	월(구리), 토(3주)	화, 목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김용주	월, 수, 토(2주)	수, 목	소아소화기영양
	박현경	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수, 금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김자혜	목	화	소아내분비
육아지도실 2290-8871	김종덕	월, 수		호흡기알레르기
	박현경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수, 금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신생아 중환자실	박현경	수, 목, 금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08:30~17:30)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과 2290-836/ 8368 세포치로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주한	월, 수	월, 수	간질,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증후군
	김승현	월·금 (루게릭)▲, 목 (루게릭)▲	월(루게릭)▲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 수, 목▲	화, 목 (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김현영	수▲, 금, 토(2주)	화, 수▲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김희진	화▲, 금, 토(3주)	화▲, 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김영서	월, 화, 토(1주)	월, 목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오기욱	월▲, 금▲, 토(4주)	월▲, 수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박진석	화, 토(2,4주)	목, 금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안동현	수, 토(4주)	월, 수, 목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과잉행동장애
	김석현	화, 금, 토(1주)	화, 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노성원	월, 목, 토(2,3주)	월, 목	중독장애, 노인정신장애, 우울증, 조현병
피부과 2290-8434	민아란	월, 수	목	소아정신의학
	노영석	월, 화, 목, 토(2주)	월	이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고주연		해 외 연 수	
	김정은	수, 금, 토(1,3주)	화, 금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 질환, 피부암
외과 2290-8444	김은진	금, 토(4주)	화, 수, 목	일반 피부질환
	권성준	수, 금		위, 십이지장질환
	권오정	월	수	이식, 혈관질환
	이경근	화, 금	목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최동호	수, 목, 토(1주)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강홍	화, 목, 토(2주)	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정민성	목	월, 목 (임모름)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소아외과	하태경	화, 토(4주)	목	복강경/로봇위암수술, 비만대사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안병규	월, 토(3주)	수, 금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일반 외과질환, 복강경탈장수술
	윤태인	금	화, 수 (임모름)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하태경	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흉부외과 2290-8461	김영학	화	화, 금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정원상	화, 목	화, 목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김 혁	월, 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김혜선	월, 수, 금		일반 흉부(폐, 종격동 및 식도) 질환, 흉강경수술
정형외과 2290-8473	이광현	월, 수, 금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충혁	월, 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 목	화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강창남	월	월, 수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해 외 연 수	
	김이석	목, 금	화	고관절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황규태	화, 목	화	고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근골격계 다발성 손상
조영훈	이진규	화	월, 목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조영훈	금	수, 금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2017년 3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김영호	월, 수, 금	수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박예수	수, 금	월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박기철	화, 목, 토(3주)	금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이정일	월, 토(1주)	화, 금	수부 및 손목관절, 미세재건외과, 말초신경마비
	양재혁	목, 토(4주)	화, 수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스포츠 손상
	송중훈	화, 토(2주)	월, 목	견관절, 주관절, 외상
산부인과	정언석	수, 금	월	단일공법 복강경수술(난소축, 자궁축), 부인암, 산모, 고위험산모
	류기영	월, 목	화, 수	조기진통 및 조산, 고위험임신, 초음파, 태아 이상의 진단 및 치료, 일반부인과(복강경수술)
성형외과	배준은	화	목, 금	부인종양, 최소침습수술, 복강경수술, 산모
	최승석	월, 금	수	말초신경 및 수부재건, 유방성형, 미용성형
	이장현	화, 목, 토(2,4주)	화, 목	안면기형 및 재건, 피부암, 미세재건수술, 침샘종양, 미용성형
	장정우	수, 토(1,3주)	월, 금	안면외상, 육종재건, 피부종괴, 미용성형
외과	남영수	월, 수	목	대장항문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이흥기	월, 수, 금, 토(2주)		혈관(대동맥, 경동맥, 당노발), 이식, 간담체질환
	박환경	목	화, 금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김한준	화, 금, 토(1주)	목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탈장
	김민규	화, 금, 토(3주)	수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최민아	목, 토(4주)	월, 화	유방, 갑상선질환
안과	윤정아	목	월, 화	대장항문질환
	김현일	수, 금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권준교	화	월, 금	혈관, 이식
	조희윤	화, 목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변종, 황반변성, 포도막염
	성민철	수, 금	월, 수	녹내장, 백내장
	강민호	월, 토(2,4주)	화, 금	외안부질환, 굴절, 백내장
피부과	임한웅	토(1,3주)	화	안성형, 사시, 소아안과
	신용운	월, 금, 토(2주)	수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변종, 황반변성, 포도막염
	유희준	월, 화, 금	화, 목	무좀 및 조각백선, 피부알레르기질환
	김정수	수, 목, 토	월, 수	피부미용, 피부외과, 소아피부질환
이비인후과	서현민	화	수, 금	피부미용, 일반피부과질환
	이승환	월, 수	목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정진혁	화, 금, 토(4주)	수	부비동염, 비중격질환,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지용배	월, 목, 토(1주)	화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정재호	금, 토(2주)	월, 수, 금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변하영	월, 수, 목	월, 수, 목	이명, 어지럼증, 소아 및 일반이비인후과질환
비뇨기과	박우성	화, 토(3주)	화, 목, 금	비부비동염, 비중격 만곡증, 알레르기 비염,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최홍용	화, 목	목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종양
	문홍상	수, 토(2주)	월, 금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이승욱	월, 금, 토(1주)	화	복강경수술, 비뇨기종양, 남성과학
재활의학과 만성통증 맞춤클리닉▲	장성호	월, 금	월, 수	요로결석, 소아비뇨기질환
	한승훈	화, 목	화, 목, 금	근골격계재활,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치과	박원희	월~목, 토(2,4주)	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턱관절질환
	김윤영	화, 금, 토(1,3주)	월, 화, 목, 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통증클리닉	심재환	월, 수, 금	월, 금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양성통증, 통증질환
해의학과	김지영	화	화	중양해의학
직업환경학과	장태원	화	화	직업성질환,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 대표전화 : 1644 - 9118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손주현	화	월, 목	간질환(간염, 간경변증, 간암)
	한동수	월, 목	화	소장, 대장질환(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기능성 장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소화기, 위장관질환
	은창수	수, 금	월	소화기, 위장관질환
	유교상	화, 수, 토(2,4주)	목	담도, 췌장질환, 소화기질환
	박찬혁	목, 토(1,3주)	수, 금	소화기, 위장관질환, 식도암, 위암
심장내과	정재윤	수, 목, 토(2주)	화, 금	간질환(간염, 간경변증, 간암), 소화기질환
	김순길	월, 화, 목, 금	목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박환철	수, 목, 토(1,3주)	화	고혈압, 부정맥질환
	신정훈	월, 토(2,4주)	화, 수, 목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신장내과	이용구	수	월, 수, 금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한상용	월, 목, 금	화, 수	만성콩팥병, 당뇨병콩팥병, 사구체신염, 고혈압, 투석요법
내분비내과	이주학	화, 수, 토(1,2,3주)	월, 목	특발성 부종, 만성콩팥병, 고혈압, 전해질이상질환
	이창범	화, 금, 토(1~2주)	월, 수	당뇨병, 갑상선질환, 비만증
류마티스내과 만성통증 맞춤클리닉▲	유성훈	월, 금, 토(3,4주)	화, 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이혜순	월, 화(초), 수, 토(3주)	월(초), 화, 수(초),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방소영	월(초), 화, 수(초), 목, 금, 토(2,4주)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호흡기내과	안수민	월(초), 화, 수(초), 토(1,2,4주, 초)	월, 화~목(초),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김태형	월, 수, 목, 토(2주)	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폐암, 중환자관리
중환자실	문지용	화, 금, 토(1,3주)	월, 목	만성기침,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결핵, 폐암
	박태선		수, 금	중환자치료, 호흡부전, 폐렴, 기관지내시경
혈액종양내과	박태선	월~토	월, 화, 목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최정혜	화, 목, 토(2,4주)	월, 수, 금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감염내과	원영웅	월, 수, 금, 토(1,3주)	화, 목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김지은	목, 토(2,4주)	월, 화, 수	간염질환, 불명열,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해외여행자, 예방접종
소아청소년과	김창렬	화, 수, 금	화	신생아학, 영아신경발달 및 질환
	오재원	수, 금, 토(4주)	월, 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문진화	월, 목, 토(2주)	월, 화, 목	소아신경질환
	이영호	월		소아혈액종양
	김남수		금	소아심장질환
	김지혜	수, 토(1주)	월, 수, 목	소아내분비질환, 성장, 의학유전질환
신경과	최영진	월, 화, 목, 금, 토(3주)	금	소아호흡기질환
	이영주	화, 금	화, 목, 금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러움증, 하지불안증후군
	이규용	월, 수, 금	월, 수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 하지불안증후군, 손저림
	고성호	월, 수, 목	월, 수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최호진	화, 목, 토	월, 목	치매, 뇌졸중, 두통
	박용천	월, 화(보건의료, 목)	월, 목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정신건강 의학과	김대호	화, 목, 토(1주)	화, 수(클리닉), 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최준호	월, 수, 금, 토(2,4주)	수	조현병, 조기정신병, 조울증, 우울증, 신경영양학
	김충현	월, 금, 토(1주)	화, 수	뇌종양, 뇌졸중, 척추 및 말초신경질환
	김재민	수, 목, 토(4주)	월	뇌혈관질환, 두개저뇌종양 및 뇌동맥류, 뇌종양
신경외과	정진환	월, 토(2주)	화, 목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류제일	화, 수	금	척추질환(최소침습척추수술), 척추종양, 두부외상
	한명훈	목, 금, 토(3주)	월	뇌종양, 뇌정위기능, 두부외상
	나민균	화, 토(1,3주)	목	뇌종양, 두부외상, 일반신경외과
흉부외과	노선균	수, 금	화, 금	심장질환(관상동맥, 심장판막질환, 심장종양), 대동맥 및 혈관질환(동맥맥루, 말초동맥질환, 하지정맥류 등), 흉부외상, 기흉
	남승혁	월	월, 수, 목	흉강경수술, 폐암, 식도암, 양성폐질환, 기흉, 다낭성, 중격동질환, 흉부외상, 흉곽기형

* 2017년 3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해의학과	최윤영	수	수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이수진	토(1,3주)	월	일반진료
치과	이영수	목, 금	월, 화, 목	임플란트, 원전/부분틀니, 심미보철
	황경균	월, 화, 목	월, 화	턱알골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박창주	화, 목, 금	화, 목	턱알골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정법
	한지영	월~금	화,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김주형	월, 화, 목	월, 화, 목, 금	심미교정, 설측교정, 금속교정, 수술교정
	심광섭	금	수	턱알골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박훈기	월	목	
	황환식	수	금	
	박계영	수	월, 수	
가정의학과	김용주	수, 금, 토(2주)	월, 목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화, 목, 토(4주)	금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화, 수	건강증진의학
직업환경의학과	송재철	월, 화(2,4주), 목	월, 화(2,4주), 목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이수진	화(3,5주), 수, 금	화(3,5주), 수, 금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 화, 목, 토(1주)	화, 수	류마티스 · 골관절염, 성인형스틸병, 근염
	배상철	월, 수, 목	월, 목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전재범	화, 수, 금, 토(1주)	목, 금	류마티스 · 골관절염, 경피증, 통풍
	김태환	화, 목, 토(1주)	월, 화, 목	강직성척추염, 퇴행성 관절염
	성윤경	월, 화, 수, 금, 토(3주)	수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골다공증, 소그렌병
	최찬범	월, 수, 금, 토(3주)	수, 금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소그렌병, 베체트병, 간선관절염, 혈관염
	조수경	월, 수, 목, 금, 토(1,3주)	월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베체트병
	김 담	화, 금, 토(2주)	화, 수,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소그렌증후군
	남승환	화, 토(2,5주)	금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소그렌병
	권혁희	화, 토(4주)	목	일반 류마티스내과질환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안가영	목, 토(1주)	금	일반 류마티스내과질환
	김민정	월, 토(3주)	수	일반 류마티스내과질환
	김형영	수, 금, 토(2주)	화	일반 류마티스내과질환
	박시복	수, 금, 토(3주)	월, 수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이규훈	월, 화, 목, 토(2주)	화, 목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심재철	월, 수, 목, 금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골 · 관절외과 2290-9216	최충혁	월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이봉근		해 외 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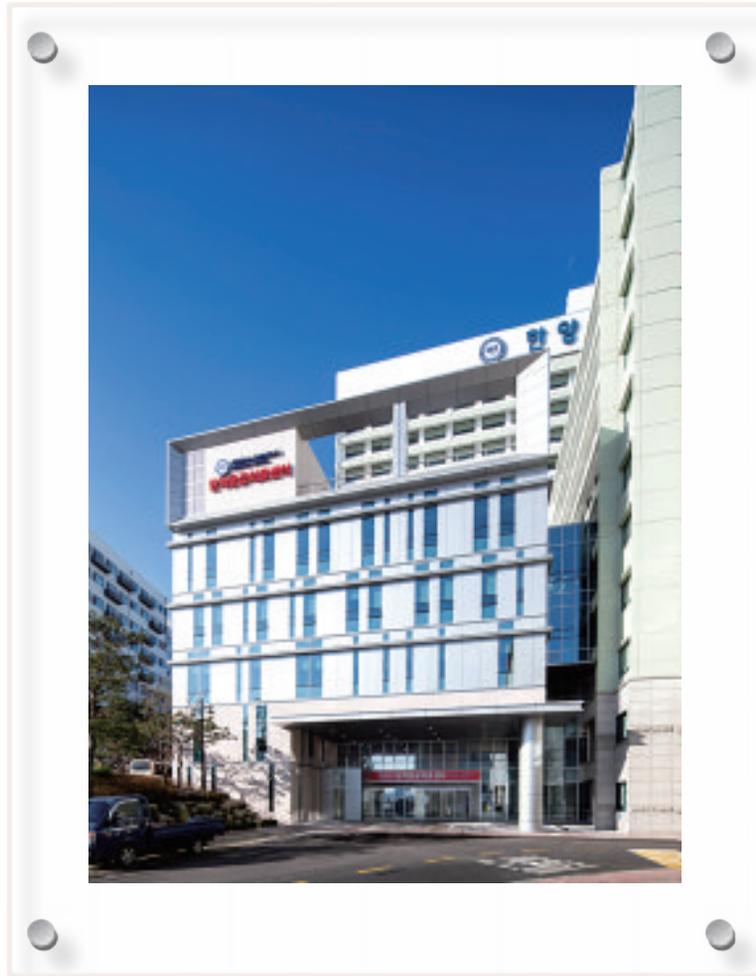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2290-9550 (ARS)	윤호주	화	월, 화, 목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박훈기	화, 수	화, 수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목	월, 목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월~토(2,4주)	목, 금	가정의학
	김정현	월, 화, 목, 금		Global healthcare, 심장내과
여행자 클리닉	배현주	수		간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 클리닉
	김정태	월, 목	수, 금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성형외과 국제진료	김연환	화, 금	목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코), 일반성형,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육창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고 용	월, 수	월	뇌혈관질환, 미세극소침습뇌수술, 내시경뇌하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김영수	화	목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뇌종양
	백광흠	월, 수	금	디스크, 요통, 척추질환, 내시경디스크수술, 척추종양
	이형중	목	화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전형준	금	수	오후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팔저림증(목디스크, 손목증후군), 신경손상(두부, 목, 척추), 통증성질환, 척추종양
	최규선	금, 토(1,3주)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수, 금	월	유방재건 및 성형, 선천성 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정태	월, 금	수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김연환	화, 목, 토(2,4주)	화, 목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코), 일반성형,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육창
	윤승기	토(1주)	금	일반 성형외과질환
산부인과 2290-8400	임수연	토(3주)	수	일반 성형외과질환
	황정혜	화, 수, 목, 금	월	일반 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폐경, 불임, 시험관아기
	최중섭	월, 수	수, 금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월, 화, 목, 토(1,3주)	화	일반 산부인과, 고위험임신, 조산,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해 외 연 수		
	이원우	화, 목, 토(2,4주)	화, 목	난소암, 자궁암, 일반 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 수술
안과 2290-8570	엄정민	금, 토(1,3주)	월, 수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은현	월, 수	금	일반 산부인과질환
	엄기방	월, 수	금	녹내장, 백내장
	이병로	화, 목, 토(3주)	목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임한웅	금, 토(4주)	월, 수	소아안과, 사시, 안성형, 신경안과
	안성준	토(1, 3주)	월, 화, 수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미숙아망막증
이비인후과 2290-8580	김유정	금, 토(2주)	화, 목	외안부, 굴절교정, 백내장
	박철원	화, 금, 토(3주)	화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김경래	목, 토(2주)	월,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태 경	월, 수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조석현	월, 화, 토(1주)	화, 금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무호흡
	송창면	수, 목, 토(4주)	월, 목	후두음성질환, 인후두역류질환, 소아이비인후과, PITA편도수술, 갑상선암, 두경부암
비뇨기과 2290-8593	임종현	금	수	일반 이비인후과,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난청, 어지럼증, 이명
	박해영	수, 금	월, 수	신장이식 및 남성과학, 신결석, 전립선질환, 비뇨기질환
	김용태	화, 목	화, 수	배뇨장애, 요실금,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신장질환, 신결석
	박성열	월, 수, 목	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신결석, 소아비뇨기 질환
재활의학과 2290-9350	조정기	화, 금, 토(1,3주)	목	비뇨기 종양학, 로봇 및 복강경수술,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윤영은	월, 토(2,4주)	화, 금	일반 비뇨기과질환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전하정	월, 수	화, 수, 목	방사선종양학
박혜진	월, 화, 목, 금	월, 화	방사선종양학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서울 동남권역 중증 응급환자들의
빛이 되겠습니다**



2017년의 시작과 함께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 동남권역의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권역 내 중증 응급환자들에게 최적의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